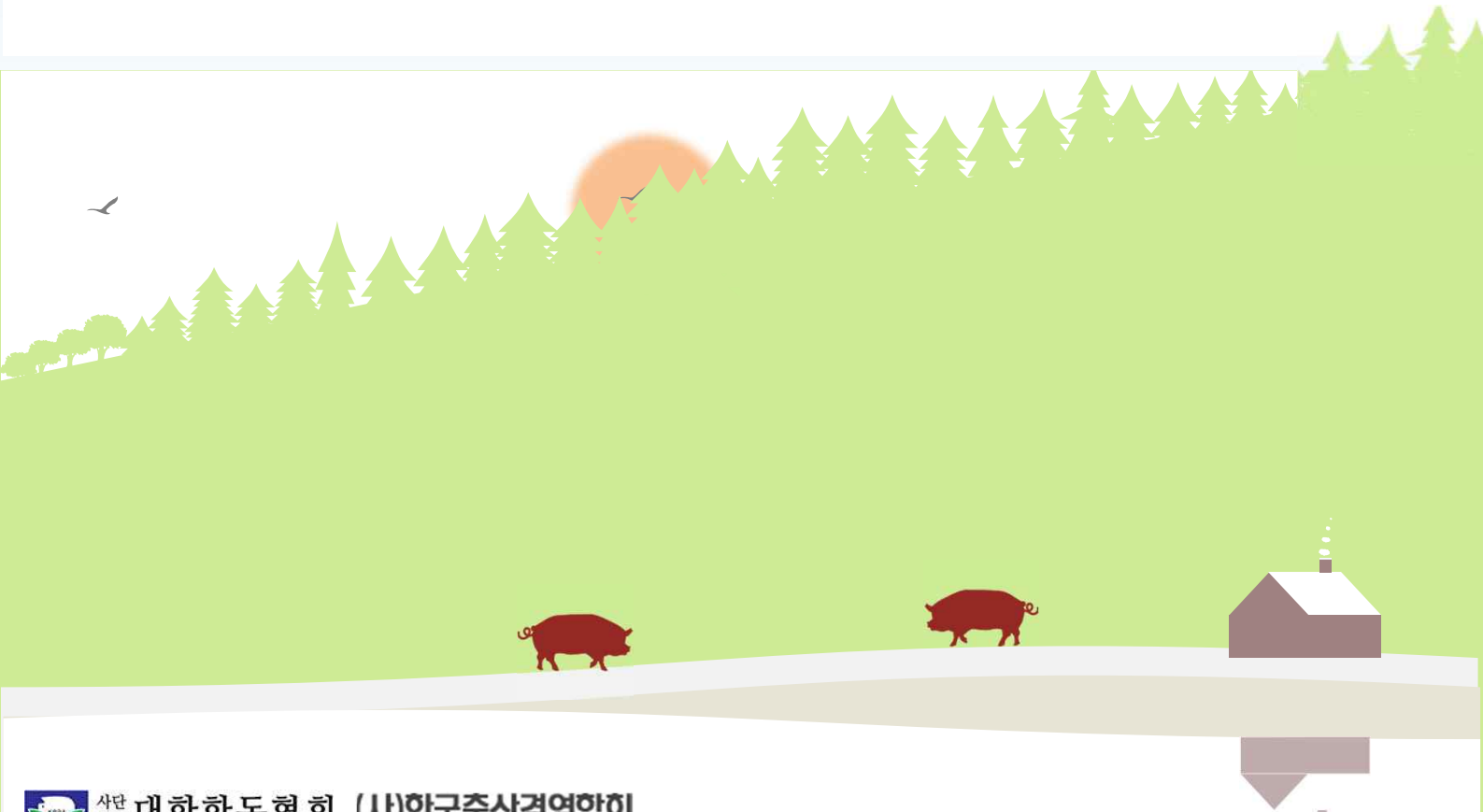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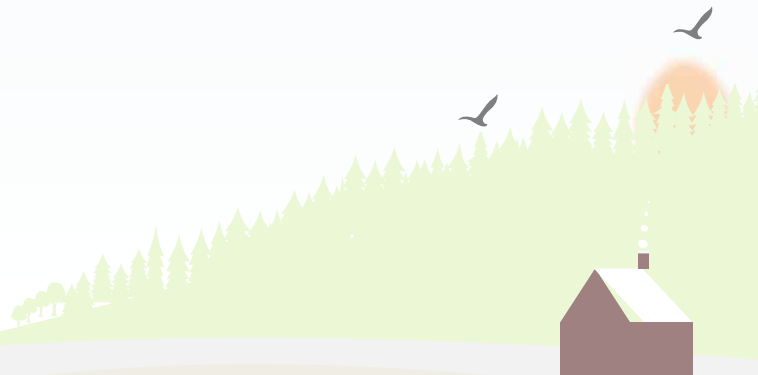
2022년

# 한돈농가 경영실태 조사



- I. 개요
- II. 응답자 기본사항
- III. 생산성 조사
- IV. 수익성 조사
- V. 유통 및 계열화
- VI. 기타 의향조사
- VII. 동물복지 및 ICT

개요



## 1. 조사 설계

### 1) 조사·분석 목적

국내 전업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질 경영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통해 국내 한돈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함.

본 조사는 '기초 통계자료'로 한돈산업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물론, 한돈농가를 위한 각종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을 정부와 업계에 건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함.

### 2) 조사대상

한돈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전국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청 가축동향 2022년 1/4분기 기준 500두 이상 규모 한돈농장 4,358호 중 462호(10.6%) 조사되었음.

## 2. 조사 개요

1) 조사처 : (사)대한한돈협회(한돈미래연구소)

2) 조사기간

- 1차 : 2022. 8. 9. ~ 2022. 8. 29.

- 2차 : 2022. 9. 14. ~ 2022. 10. 11.

\* 조사기준 : 2022년 7월 31일 시점 기준 (연간기준 : 2021년 8월 ~ 2022년 7월)

3) 조사방법

- 1차 : 농가 자율 참여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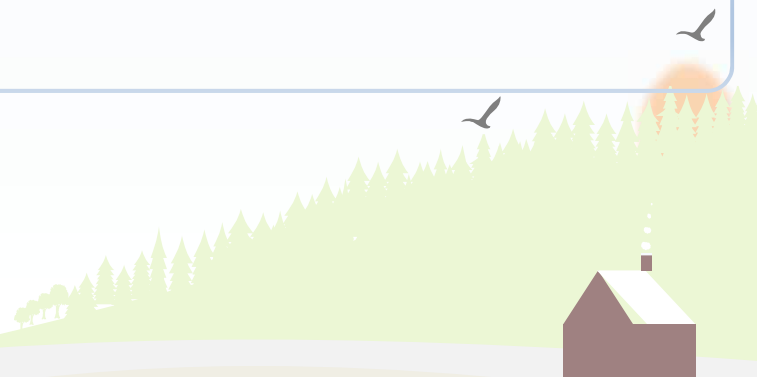
- 2차 : 대한한돈협회 조직을 통해 표본농가 대상 지부(회) 조사원 조사

## 3. 분석개요

1) 분석처 : (사)한국축산경영학회

2) 분석기간 : 2022. 11. 10. ~ 2022. 12. 28.

3) 분석방법 : SPSS와 Excel을 이용한 빈도 및 교차분석



## 4.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기본 사항	나이, 성별, 농장소재지 양돈경력 및 현재 농가 운영기간 농장 사육 형태 / 사육두수(모돈, 전체) 돈사 면적(총 부지, 건물, 돼지사육시설) 농장 인력구성(가족, 고용내국인, 고용외국인) 및 농장 후계자 생산관리 시스템	
생산성	전체	번식 성적(모돈 사육 농가만 응답)
	가장 피해입은 질병 사고 및 폐사율 심각한 사육단계 방역 및 가축질병 근절에 필요한 조치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연간 생산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후보돈 구입 종돈장 모돈 구성(순종, F1, 기타) 종돈 구입시 고려사항 모돈 복당 평균 포유개시두수, 이유두수, 이유일령 육성 및 비육기간 폐사마릿수 연간 출하두수, 평균출하체중, 일령 후보돈 선발방법 평균 모돈회전율 및 모돈갱신율 인공수정 실시 방법
수익성	연간 총수입 및 총지출, 금융 부채액 정책자금 지원액 및 정책자금 대출시 담보설정 방법 비육돈 1마리 출하시 소요되는 생산비 / 월간 평균 약품비 및 평균 인건비 월 사료비 및 사료 정산방법 / 사료 구입처 및 배합사료 평균 단가	
유통 및 계열화	돼지 출하처 이용 비율 / 출하시 지급률 돼지 가격 정산시 적용하는 기준 가격 및 적용 기간 비육돈 위탁사육	
기타 의향	손해보험 및 가축보험특약 가입 1년 후 사육규모 계획 / 1년 전 대비 사육두수 변화 양돈업 어려운 점 / 향후 한돈산업 어렵게 할 요인 양돈업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 및 대한한돈협회에 바라는 점 사료가격 지불의향 / 효과적 사료가격 대책	
동물복지 및 ICT	동물복지 인증 임신돈 사육형태 / 임신돈 군사 사육시설 전환계획 / 임신돈 두당 사육면적 농장 보유 ICT 및 운영 애로사항	



I. 개요

II. **응답자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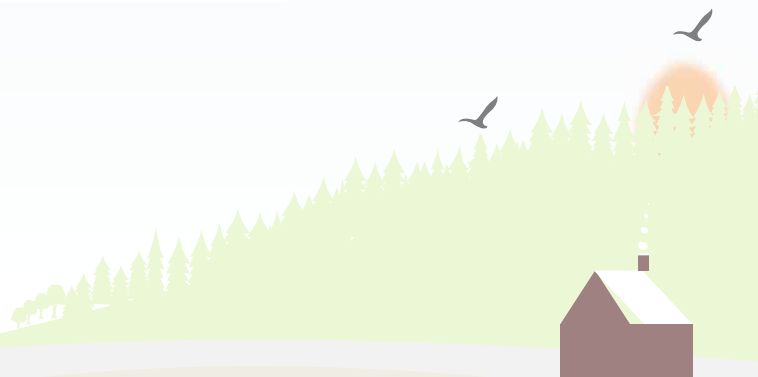
III. 생산성 조사

IV. 수익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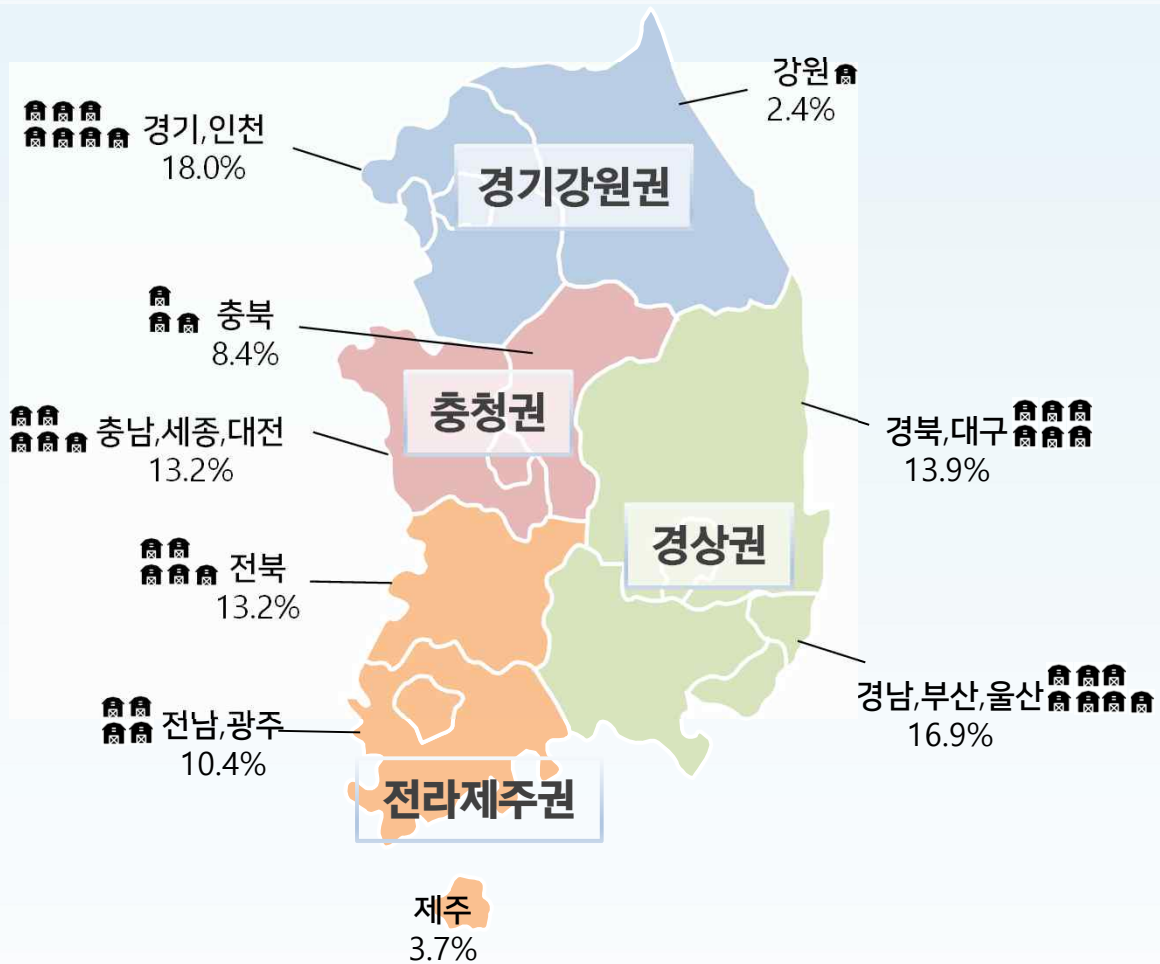
V. 유통 및 계열화

VI. 기타 의향조사

VII. 동물복지 및 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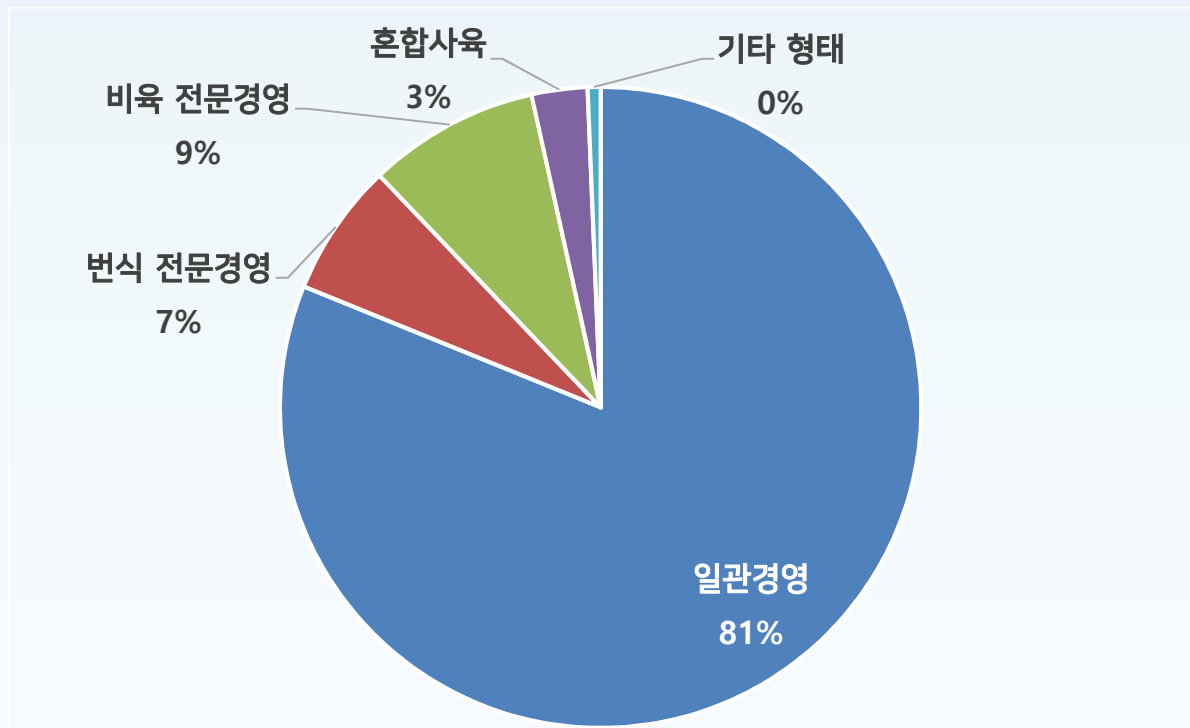
구분	농가 수	유효 퍼센트(%)
강원	11	2.4
경기.인천	83	18.0
경남.부산.울산	78	16.9
경북.대구	64	13.9
전남.광주	48	10.4
전북	61	13.2
제주	17	3.7
충남.세종.대전	61	13.2
충북	39	8.4
합계	462	100.0



응답자의 농장 소재지는 경기·인천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부산·울산, 경북·대구, 전북, 충남·세종·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 분석을 위하여 조사된 9개 지역을 총 4개 권역(경기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통합한 후 분석을 실시함.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사육 형태	일관경영	375	81.2
	번식 전문경영	31	6.7
	비육 전문경영	40	8.7
	혼합사육	13	2.8
	기타 형태	3	0.6
	합계	4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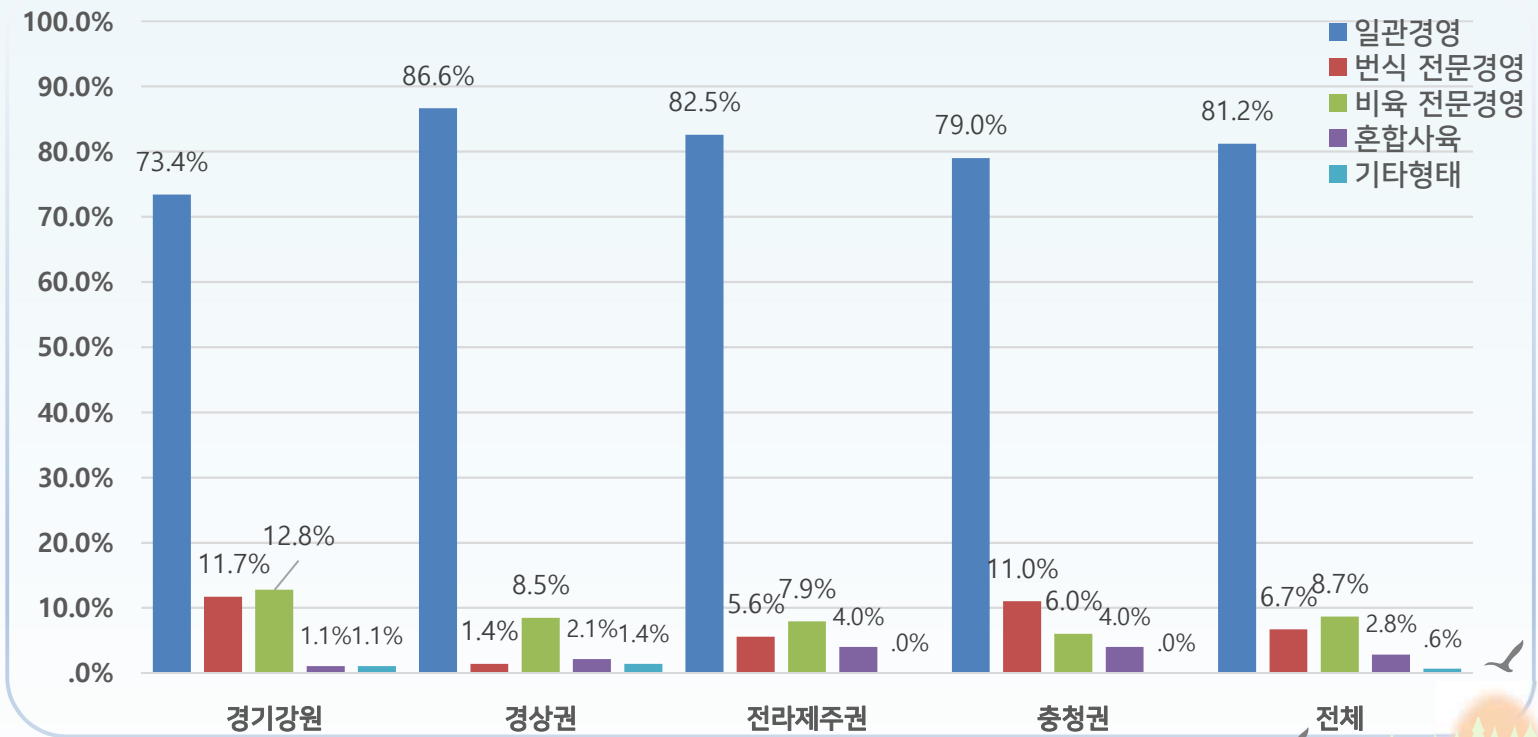


응답 농가의 사육 형태는 81.2%가 일관경영(번식~출하까지)였으며, 비육전문경영(자돈 구입 및 수탁~출하까지) 8.7%, 번식전문경영(번식~자돈 판매 및 위탁) 6.7%, 혼합사육(일부 자돈 위탁 및 판매) 2.8% 순으로 나타남.





구분**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전체	
사육 형태	일관경영	빈도	69	123	104	79	375
		사육형태%	18.4%	32.8%	27.7%	21.1%	100.0%
		소재지%	73.4%	86.6%	82.5%	79.0%	81.2%
	번식 전문경영	빈도	11	2	7	11	31
		사육형태%	35.5%	6.5%	22.6%	35.5%	100.0%
		소재지%	11.7%	1.4%	5.6%	11.0%	6.7%
	비육 전문경영	빈도	12	12	10	6	40
		사육형태%	30.0%	30.0%	25.0%	15.0%	100.0%
		소재지%	12.8%	8.5%	7.9%	6.0%	8.7%
	혼합사육	빈도	1	3	5	4	13
		사육형태%	7.7%	23.1%	38.5%	30.8%	100.0%
		소재지%	1.1%	2.1%	4.0%	4.0%	2.8%
	기타형태	빈도	1	2	0	0	3
		사육형태%	33.3%	66.7%	0%	0%	100.0%
		소재지%	1.1%	1.4%	0%	0%	6%
전체	빈도	94	142	126	100	462	
	사육형태%	20.3%	30.7%	27.3%	21.6%	100.0%	
	소재지%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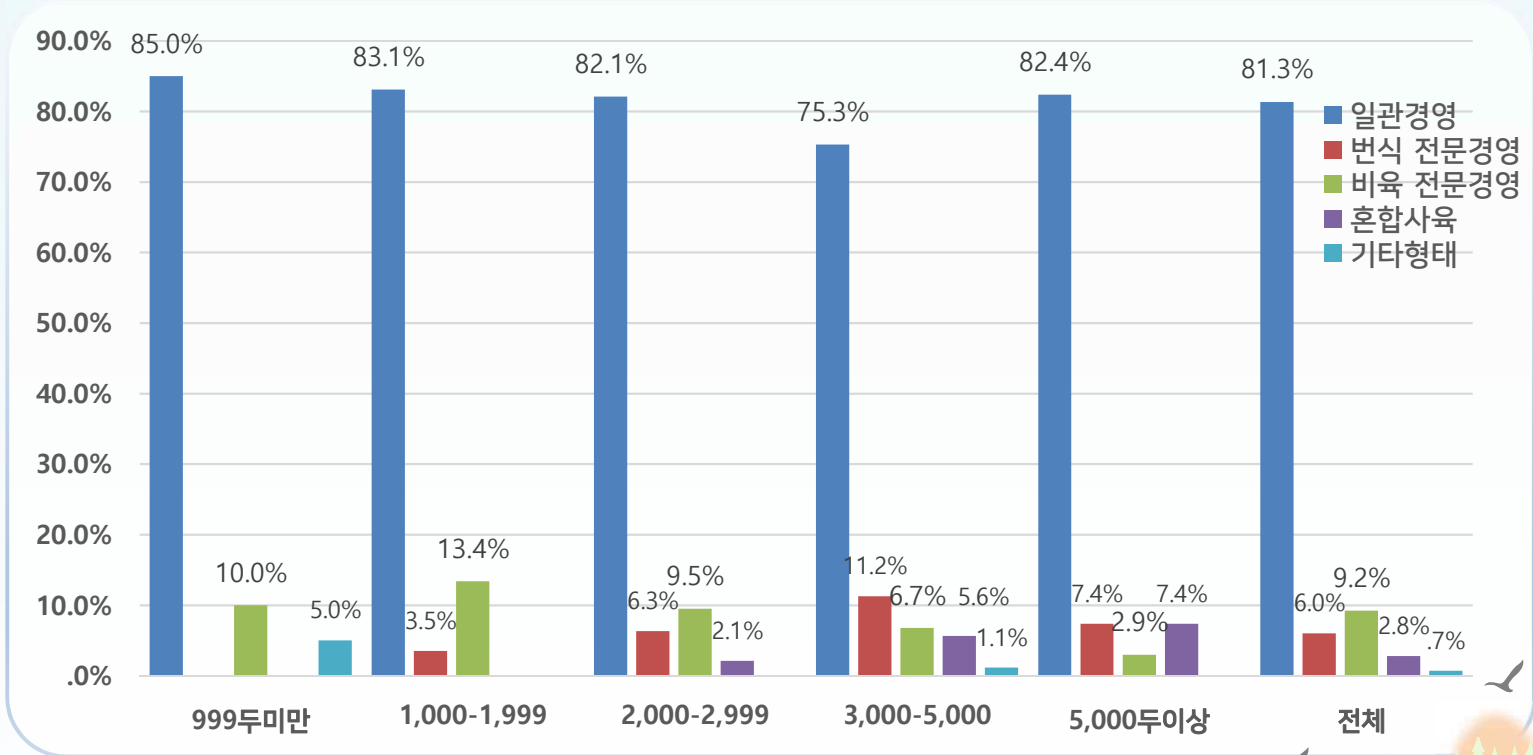


응답 농가의 사육형태는 농장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5%)가 있음. 경기강원은 상대적으로 일관경영 비중이 낮고 번식 전문경영, 비육전문경영 비중이 높고, 전라제주권과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혼합사육이 많음.





구분***			사육두수					전체
			999두미만	1,000-1,999	2,000-2,999	3,000-5,000	5,000두이상	
사육 형태	일관경영	빈도	34	118	78	67	56	353
		사육형태%	9.6%	33.4%	22.1%	19.0%	15.9%	100.0%
		사육두수%	85.0%	83.1%	82.1%	75.3%	82.4%	81.3%
	번식 전문경영	빈도	0	5	6	10	5	26
		사육형태%	.0%	19.2%	23.1%	38.5%	19.2%	100.0%
		사육두수%	.0%	3.5%	6.3%	11.2%	7.4%	6.0%
	비육 전문경영	빈도	4	19	9	6	2	40
		사육형태%	10.0%	47.5%	22.5%	15.0%	5.0%	100.0%
		사육두수%	10.0%	13.4%	9.5%	6.7%	2.9%	9.2%
	혼합사육	빈도	0	0	2	5	5	12
		사육형태%	0%	0%	16.7%	41.7%	41.7%	100.0%
		사육두수%	0%	0%	2.1%	5.6%	7.4%	2.8%
	기타형태	빈도	2	0	0	1	0	3
		사육형태%	66.7%	0%	0%	33.3%	0%	100.0%
		사육두수%	5.0%	0%	0%	1.1%	0%	0.7%
	전체	빈도	40	142	95	89	68	434
		사육형태%	9.2%	32.7%	21.9%	20.5%	15.7%	100.0%
		사육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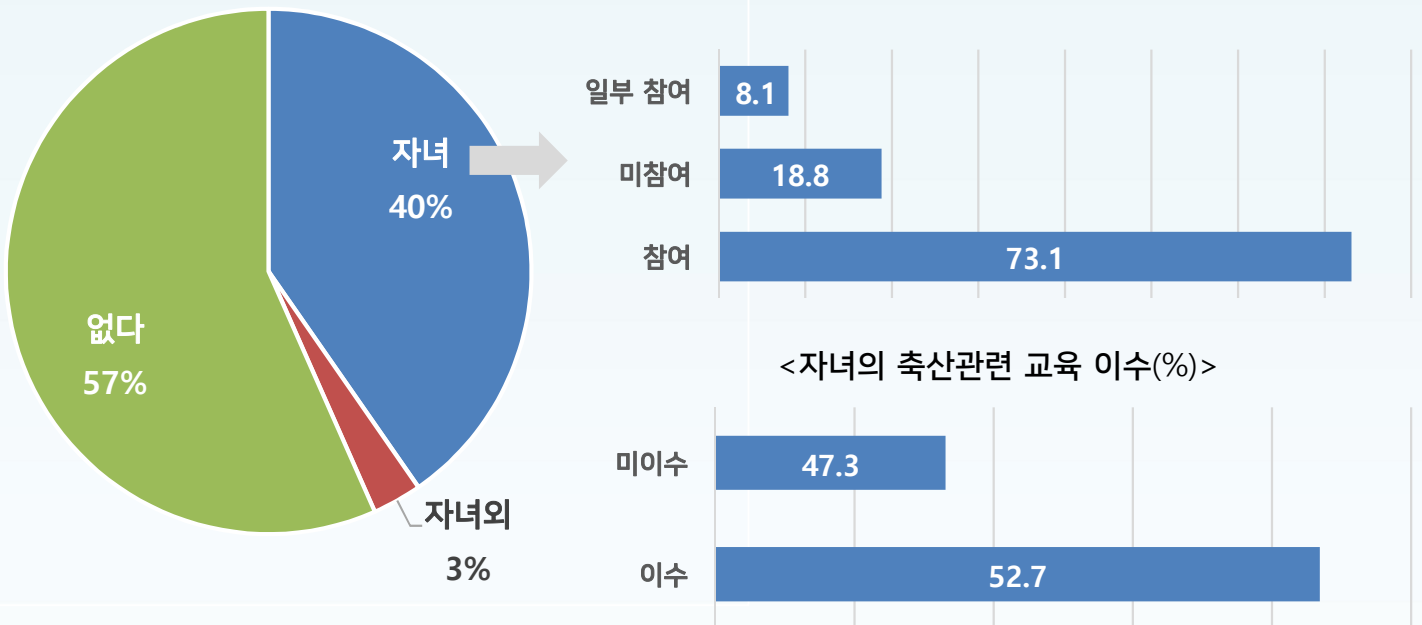


응답 농가의 사육형태는 사육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혼합사육 형태가 늘어나며, 비육 전문경영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농가 수	유효 퍼센트(%)
농장 후계자	자녀	186	40.3
	자녀외	14	3.0
	없다	261	56.6
	합계	461	100.0
'자녀' 응답자의 경우 ↓			
현재 자녀의 농장업무 참여	참여	136	73.1
	미참여	35	18.8
	일부 참여	15	8.1
	합계	186	100.0
자녀의 축산관련 교육 이수	이수	98	52.7
	미이수	88	47.3
	합계	1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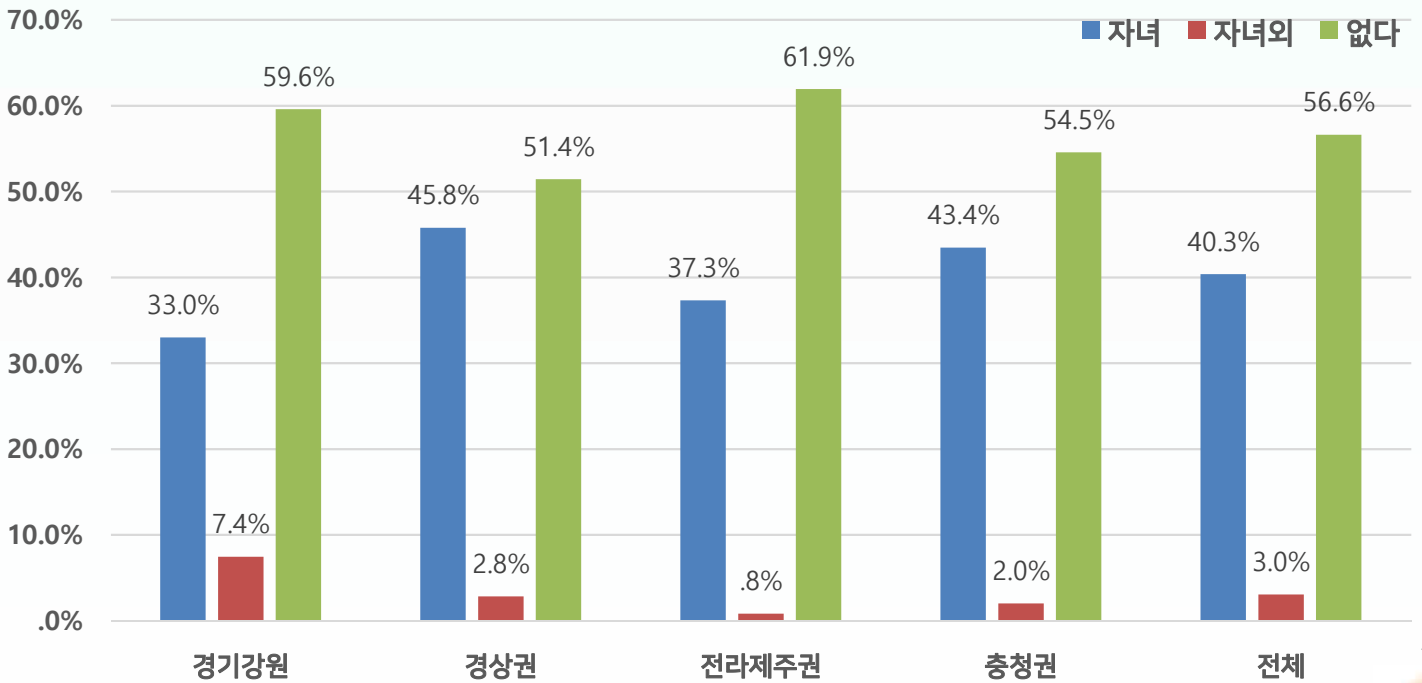
<현재 자녀의 농장업무 참여(%)>



응답자 뒤를 이어 농장을 경영할 후계자가 자녀인 경우 40%, 자녀 외 3%, 없다 57%였음. 경영 후계자가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자녀가 농장업무에 참여하는 비중은 73.1%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축산관련 학교(학과)나 마이스터 대학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비중은 52.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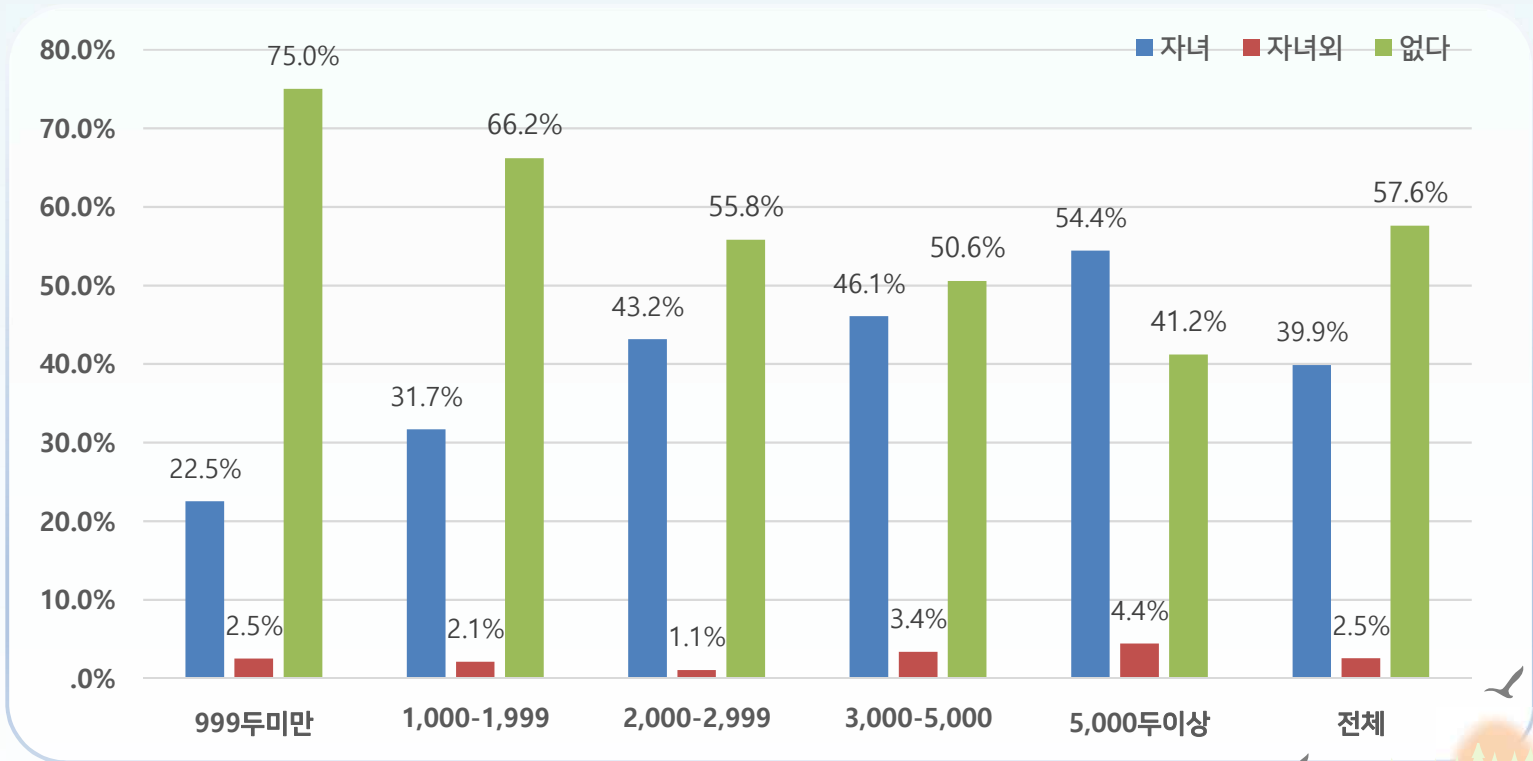
구분**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전체
농장 후계자	자녀	빈도	31	65	47	43	186
		후계자 %	16.7%	34.9%	25.3%	23.1%	100.0%
		농장소재지%	33.0%	45.8%	37.3%	43.4%	40.3%
	자녀외	빈도	7	4	1	2	14
		후계자 %	50.0%	28.6%	7.1%	14.3%	100.0%
		농장소재지%	7.4%	2.8%	.8%	2.0%	3.0%
	없다	빈도	56	73	78	54	261
		후계자 %	21.5%	28.0%	29.9%	20.7%	100.0%
		농장소재지%	59.6%	51.4%	61.9%	54.5%	56.6%
	전체	빈도	94	142	126	99	461
		후계자 %	20.4%	30.8%	27.3%	21.5%	100.0%
		농장소재지%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장 후계자 여부는 농장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5%)가 있음. 경기강원은 후계자가 자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상권은 높게 나타남. 전라제주권은 농장후계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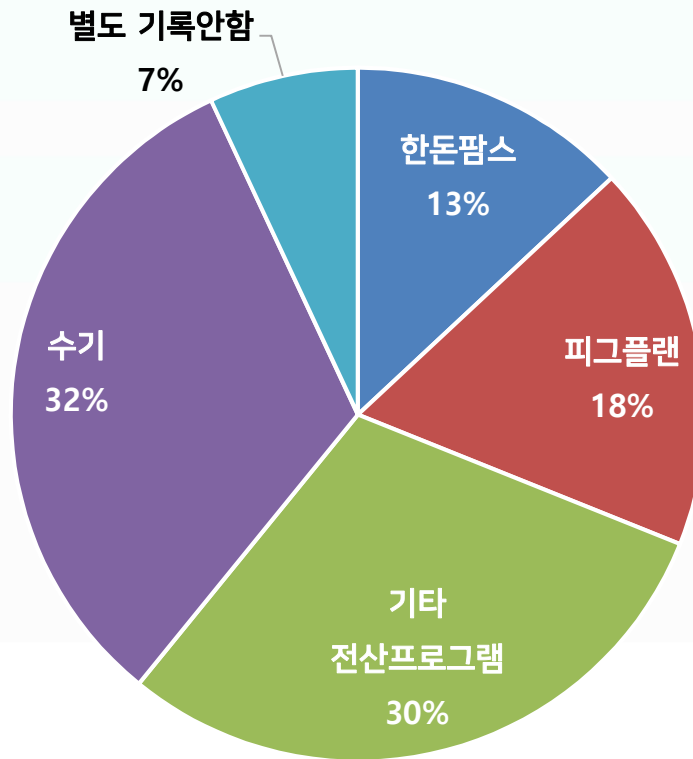
구분***			사육두수					전체
			999두미만	1,000-1,999	2,000-2,999	3,000-5,000	5,000두이상	
농장후계	자녀	빈도	9	45	41	41	37	173
		후계자 %	5.2%	26.0%	23.7%	23.7%	21.4%	100.0%
		사육두수%	22.5%	31.7%	43.2%	46.1%	54.4%	39.9%
	자녀외	빈도	1	3	1	3	3	11
		후계자 %	9.1%	27.3%	9.1%	27.3%	27.3%	100.0%
		사육두수%	2.5%	2.1%	1.1%	3.4%	4.4%	2.5%
	없다	빈도	30	94	53	45	28	250
		후계자 %	12.0%	37.6%	21.2%	18.0%	11.2%	100.0%
		사육두수%	75.0%	66.2%	55.8%	50.6%	41.2%	57.6%
	전체	빈도	40	142	95	89	68	434
		후계자 %	9.2%	32.7%	21.9%	20.5%	15.7%	100.0%
		사육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장 후계자 여부는 사육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클수록 자녀가 후계자인 경우가 늘어나고, 후계자가 없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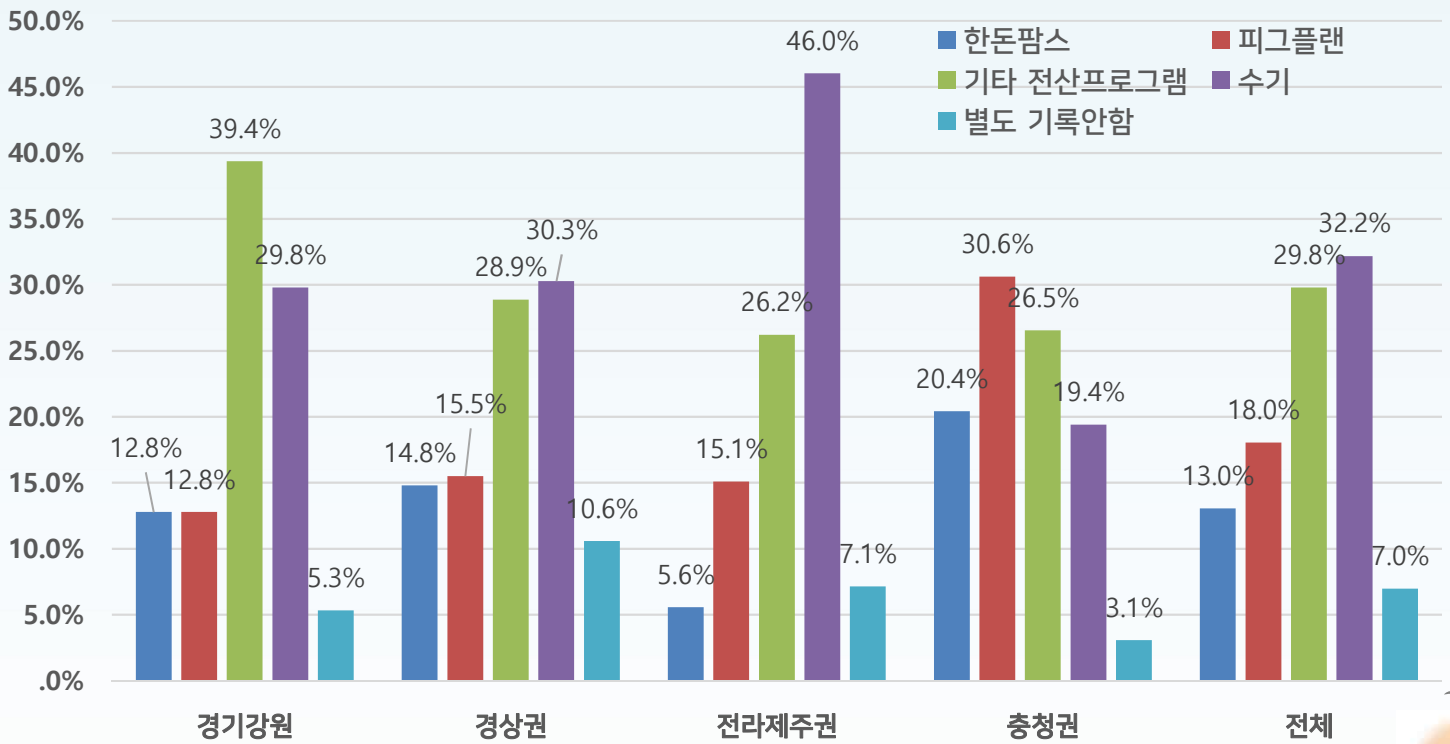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생산관리 시스템	한돈팜스	60	13.0
	피그플랜	83	18.0
	기타 전산프로그램	137	29.8
	수기	148	32.2
	별도 기록안함	32	7.0
	합계	460	100.0



응답자의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산관리시스템은 수기 32.2%, 기타 전산프로그램 29.8%, 피그플랜 18.0%, 한돈팜스(전문가용) 13.0%, 별도 기록하지 않음 7.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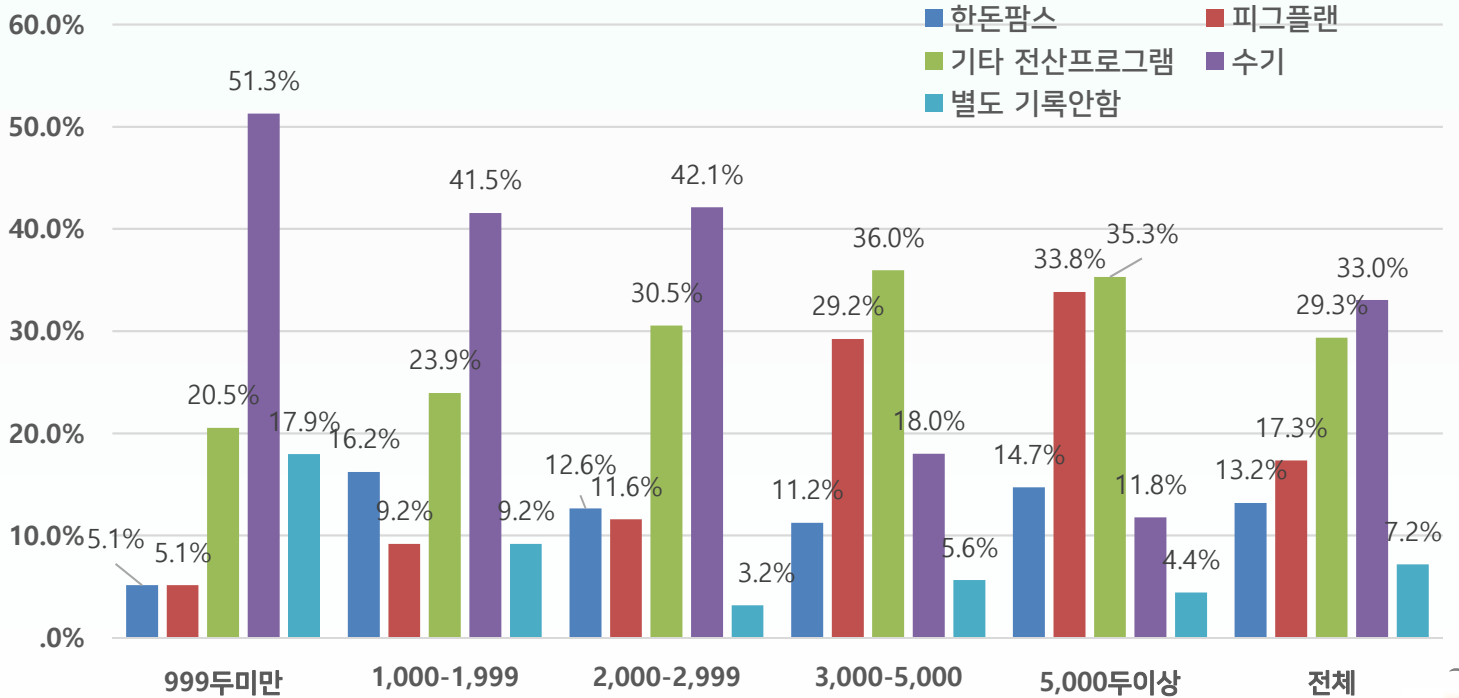
구분***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전체
생산 관리 시스템	한돈팜스	빈도	12	21	7	20	60
		관리시스템%	20.0%	35.0%	11.7%	33.3%	100.0%
		농장소재지%	12.8%	14.8%	5.6%	20.4%	13.0%
	피그플랜	빈도	12	22	19	30	83
		관리시스템%	14.5%	26.5%	22.9%	36.1%	100.0%
		농장소재지%	12.8%	15.5%	15.1%	30.6%	18.0%
	기타 전산 프로그램	빈도	37	41	33	26	137
		관리시스템%	27.0%	29.9%	24.1%	19.0%	100.0%
		농장소재지%	39.4%	28.9%	26.2%	26.5%	29.8%
	수기	빈도	28	43	58	19	148
		관리시스템%	18.9%	29.1%	39.2%	12.8%	100.0%
		농장소재지%	29.8%	30.3%	46.0%	19.4%	32.2%
	별도 기록안함	빈도	5	15	9	3	32
		관리시스템%	15.6%	46.9%	28.1%	9.4%	100.0%
		농장소재지%	5.3%	10.6%	7.1%	3.1%	7.0%
	전체	빈도	94	142	126	98	460
		관리시스템%	20.4%	30.9%	27.4%	21.3%	100.0%
		농장소재지%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산관리시스템은 농장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전라제주권은 수기 관리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강원은 기타 전산프로그램, 충청권은 피그플랜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구분***			사육두수					전체
			999두미만	1,000-1,999	2,000-2,999	3,000-5,000	5,000두이상	
생산 관리 시스템	한돈팜스	빈도	2	23	12	10	10	57
		관리시스템%	3.5%	40.4%	21.1%	17.5%	17.5%	100.0%
		사육두수%	5.1%	16.2%	12.6%	11.2%	14.7%	13.2%
	피그플랜	빈도	2	13	11	26	23	75
		관리시스템%	2.7%	17.3%	14.7%	34.7%	30.7%	100.0%
		사육두수%	5.1%	9.2%	11.6%	29.2%	33.8%	17.3%
	기타 전산 프로그램	빈도	8	34	29	32	24	127
		관리시스템%	6.3%	26.8%	22.8%	25.2%	18.9%	100.0%
		사육두수%	20.5%	23.9%	30.5%	36.0%	35.3%	29.3%
	수기	빈도	20	59	40	16	8	143
		관리시스템%	14.0%	41.3%	28.0%	11.2%	5.6%	100.0%
		사육두수%	51.3%	41.5%	42.1%	18.0%	11.8%	33.0%
	별도 기록안함	빈도	7	13	3	5	3	31
		관리시스템%	22.6%	41.9%	9.7%	16.1%	9.7%	100.0%
		사육두수%	17.9%	9.2%	3.2%	5.6%	4.4%	7.2%
	전체	빈도	39	142	95	89	68	433
		관리시스템%	9.0%	32.8%	21.9%	20.6%	15.7%	100.0%
		사육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산관리시스템은 사육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수기 관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며, 기타전산프로그램 및 피그플랜 사용 비중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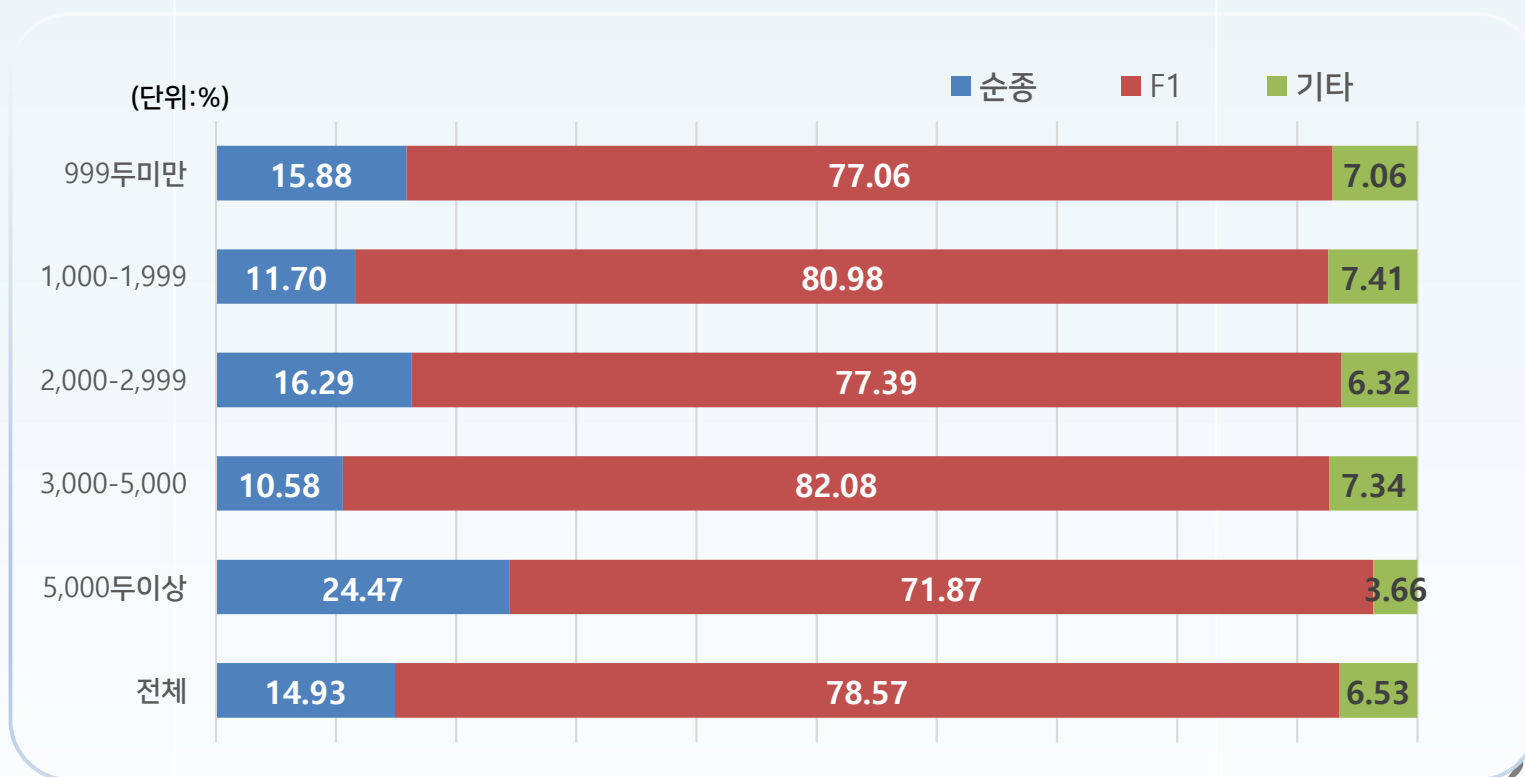




- I. 개요
- II. 응답자 기본사항
- III. **생산성 조사**
- IV. 수익성 조사
- V. 유통 및 계열화
- VI. 기타 의향조사
- VII. 동물복지 및 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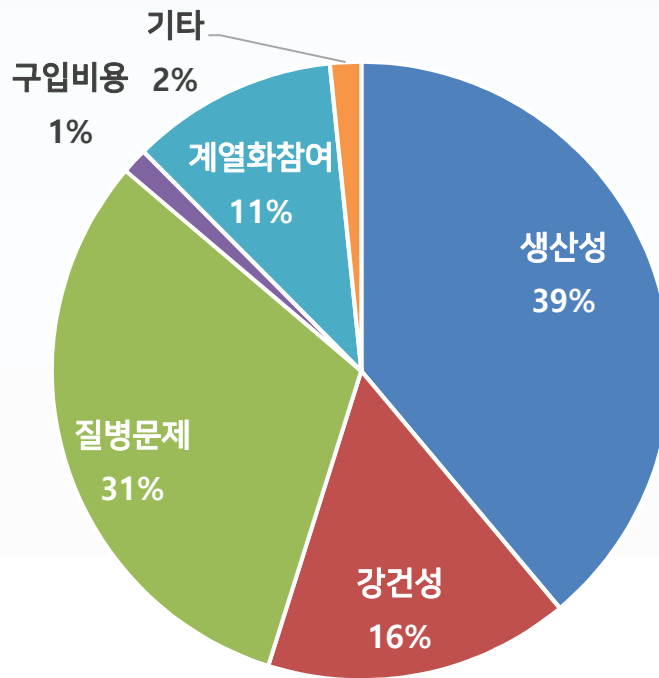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순종*	999두미만	34	15.88	33.676
	1,000-1,999	112	11.70	28.502
	2,000-2,999	75	16.29	31.965
	3,000-5,000	64	10.58	24.532
	5,000두이상	53	24.47	35.739
	합계	338	14.93	30.569
F1	999두미만	34	77.06	38.888
	1,000-1,999	112	80.98	33.563
	2,000-2,999	75	77.39	35.163
	3,000-5,000	64	82.08	30.177
	5,000두이상	53	71.87	36.700
	합계	338	78.57	34.360
기타	999두미만	34	7.06	23.935
	1,000-1,999	112	7.41	20.697
	2,000-2,999	75	6.32	19.257
	3,000-5,000	64	7.34	20.296
	5,000두이상	53	3.66	12.562
	합계	338	6.53	19.537



모든 사육 농가의 모든 구성 비율은 순종 14.9%, F1 78.6%, 기타 6.5%임. 5000두 이상 농가는 F1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순종 비중이 높게 나타남.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종돈 구입시 고려사항	생산성	144	38.9
	강건성	59	15.9
	질병문제	116	31.4
	구입비용	5	1.4
	계열화참여	40	10.8
	기타	6	1.6
	합계	3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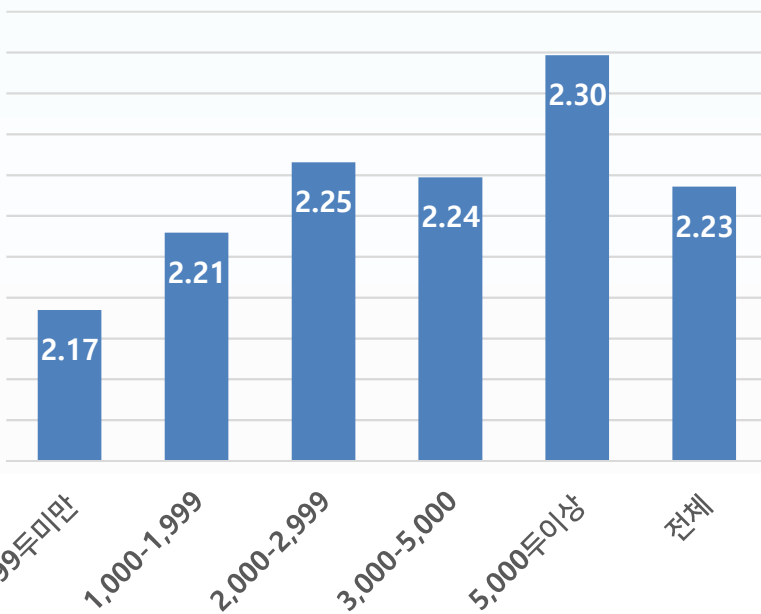


종돈 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생산성(산자수)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문제(PRRS 등) 31%, 강건성 16%, 계열화 참여(브랜드육 생산) 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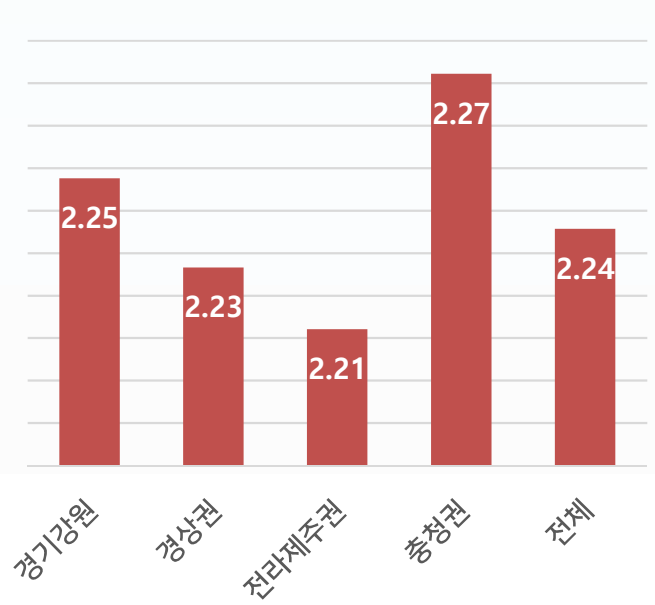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모돈회전율	사육규모***	999두미만	29	2.1738	0.15412
		1,000-1,999	106	2.2117	0.10750
		2,000-2,999	77	2.2462	0.09564
		3,000-5,000	63	2.2389	0.13634
		5,000두이상	46	2.2987	0.07957
		합계	321	2.2344	0.11692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62	2.2476	0.09545
		경상권	112	2.2266	0.11722
		전라제주권	95	2.2121	0.12959
		충청권	69	2.2722	0.10186
		합계	338	2.2357	0.11591

<사육규모별 모돈회전율(회/년)>



<농장소재지별 모돈회전율(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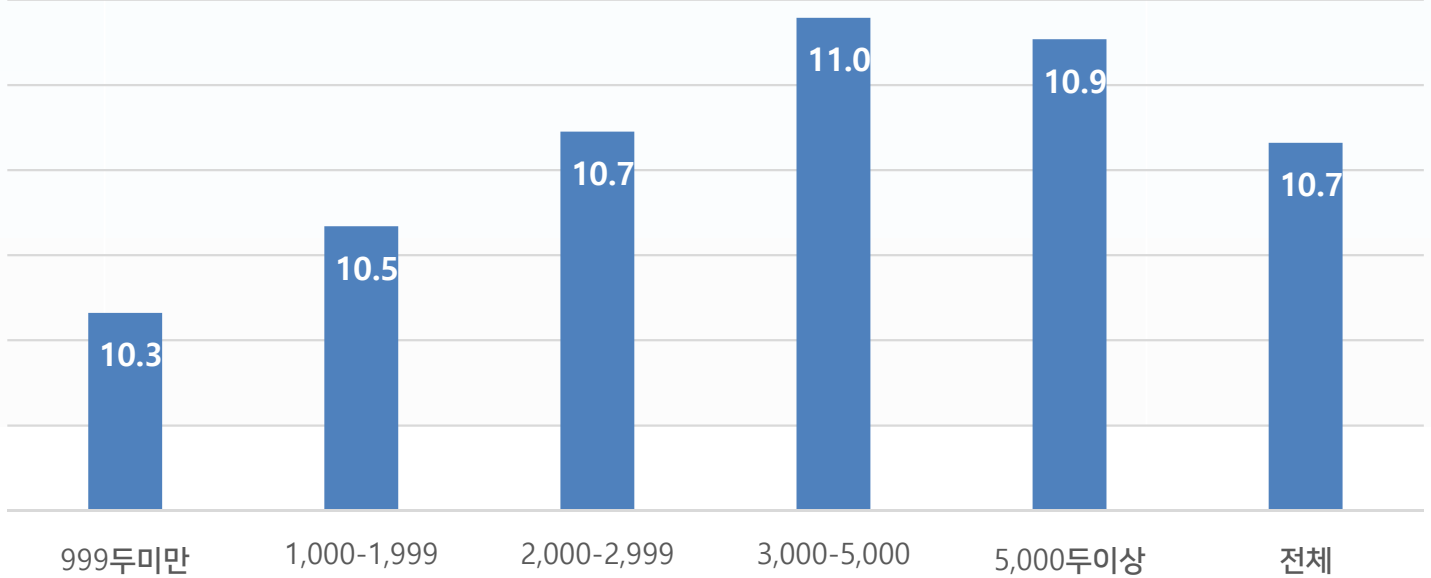
사육규모에 따른 모돈회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999두 미만 농장의 모돈회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농장소재지에 따른 모돈회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전라제주권의 모돈갱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N	평균	표준편차
사육규모별 복당이유두수***	999두미만	31	10.2645	1.24353
	1,000-1,999	113	10.4674	0.96434
	2,000-2,999	72	10.6903	1.02107
	3,000-5,000	66	10.9576	0.94853
	5,000두이상	54	10.9074	1.03447
	합계	336	10.6635	1.03378

(단위: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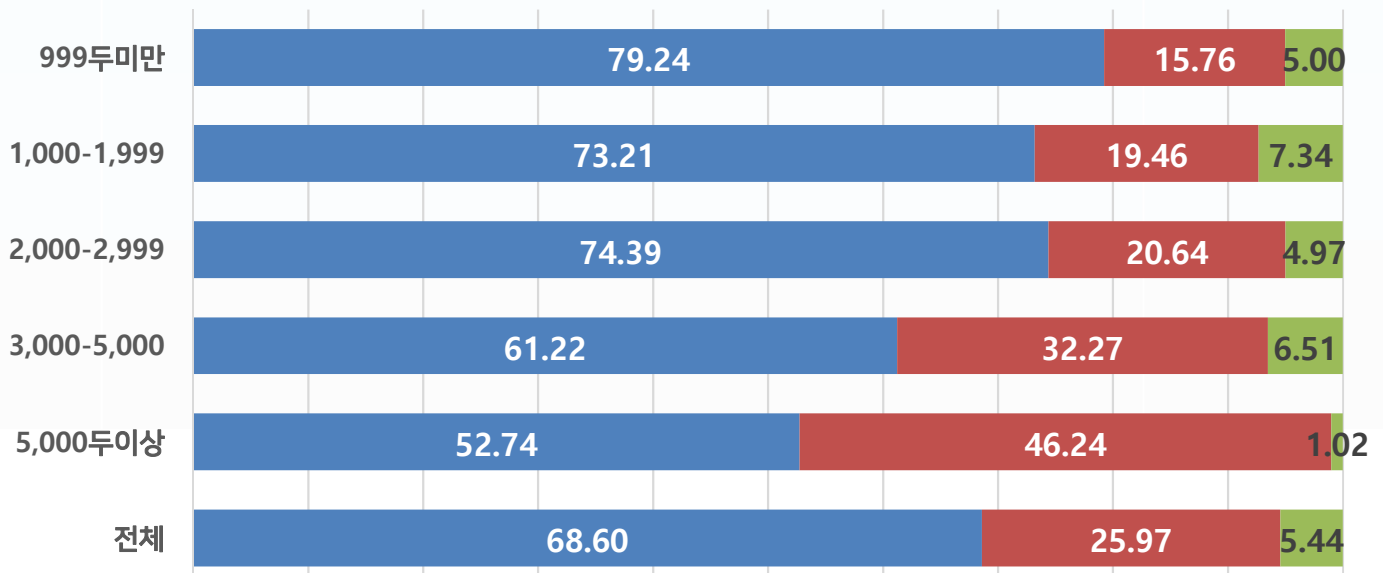
사육규모별 복당이유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복당 이유두수가 증가함.



		N	평균	표준편차
종돈장구입***	999두미만	33	79.24	37.999
	1,000-1,999	116	73.21	40.501
	2,000-2,999	75	74.39	38.810
	3,000-5,000	63	61.22	44.421
	5,000두이상	54	52.74	45.291
	합계	341	68.60	42.116
자가 F1생산,선발***	999두미만	33	15.76	33.730
	1,000-1,999	116	19.46	35.597
	2,000-2,999	75	20.64	36.641
	3,000-5,000	63	32.27	43.087
	5,000두이상	54	46.24	44.570
	합계	341	25.97	39.744
자가 비육돈 선발	999두미만	33	5.00	14.577
	1,000-1,999	116	7.34	22.832
	2,000-2,999	75	4.97	17.391
	3,000-5,000	63	6.51	22.318
	5,000두이상	54	1.02	2.975
	합계	341	5.44	18.946

(단위:%)

■ 종돈장구입 ■ 자가F1생산,선발 ■ 자가비육돈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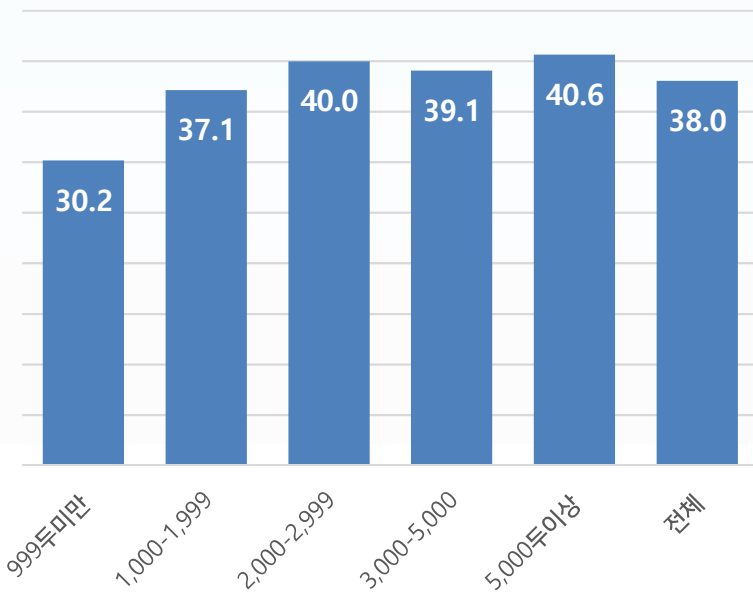


모든 갹신용 후보돈 선발은 종돈장 구입이 68.6%로 가장 많고, 자가 F1생산 및 선발 26.0%, 자가 비육돈선발 5.4% 순임.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종돈장구입 비중이 줄고 자가 F1 생산 및 선발 비중이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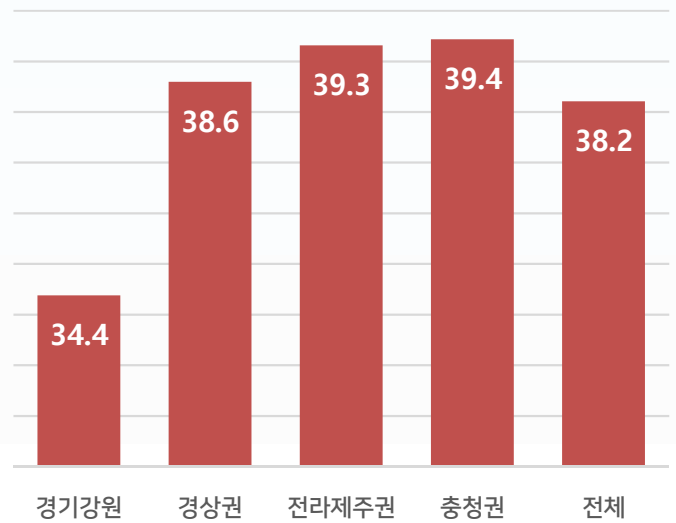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모든 갱신율	사육규모***	999두미만	32	30.16	6.284
		1,000-1,999	115	37.13	9.912
		2,000-2,999	78	39.99	8.984
		3,000-5,000	66	39.07	8.420
		5,000두이상	54	40.63	9.357
		합계	345	38.05	9.447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66	34.38	8.971
		경상권	121	38.59	10.400
		전라제주권	101	39.31	9.352
		충청권	78	39.44	7.617
		합계	366	38.21	9.458

<사육규모별 모든갱신율(%)>



<농장소재지별 모든갱신율(%)>



사육규모에 따른 모든갱신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999두 미만 농장의 모든갱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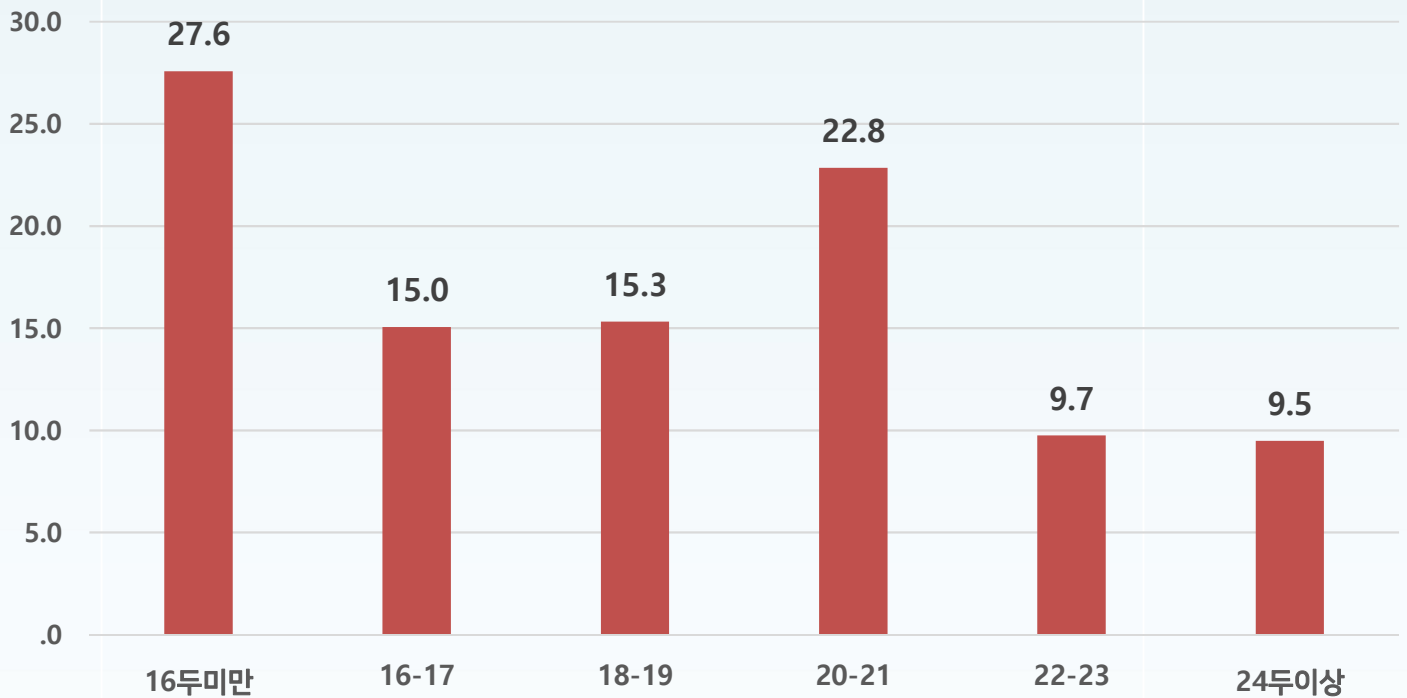
농장소재지에 따른 모든갱신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경기,강원권의 모든갱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농가 수	유효 퍼센트(%)
MSY	16두 미만	99	27.6
	16-17두	54	15.0
	18-19두	55	15.3
	20-21두	82	22.8
	22-23두	35	9.7
	24두 이상	34	9.5
	합계	3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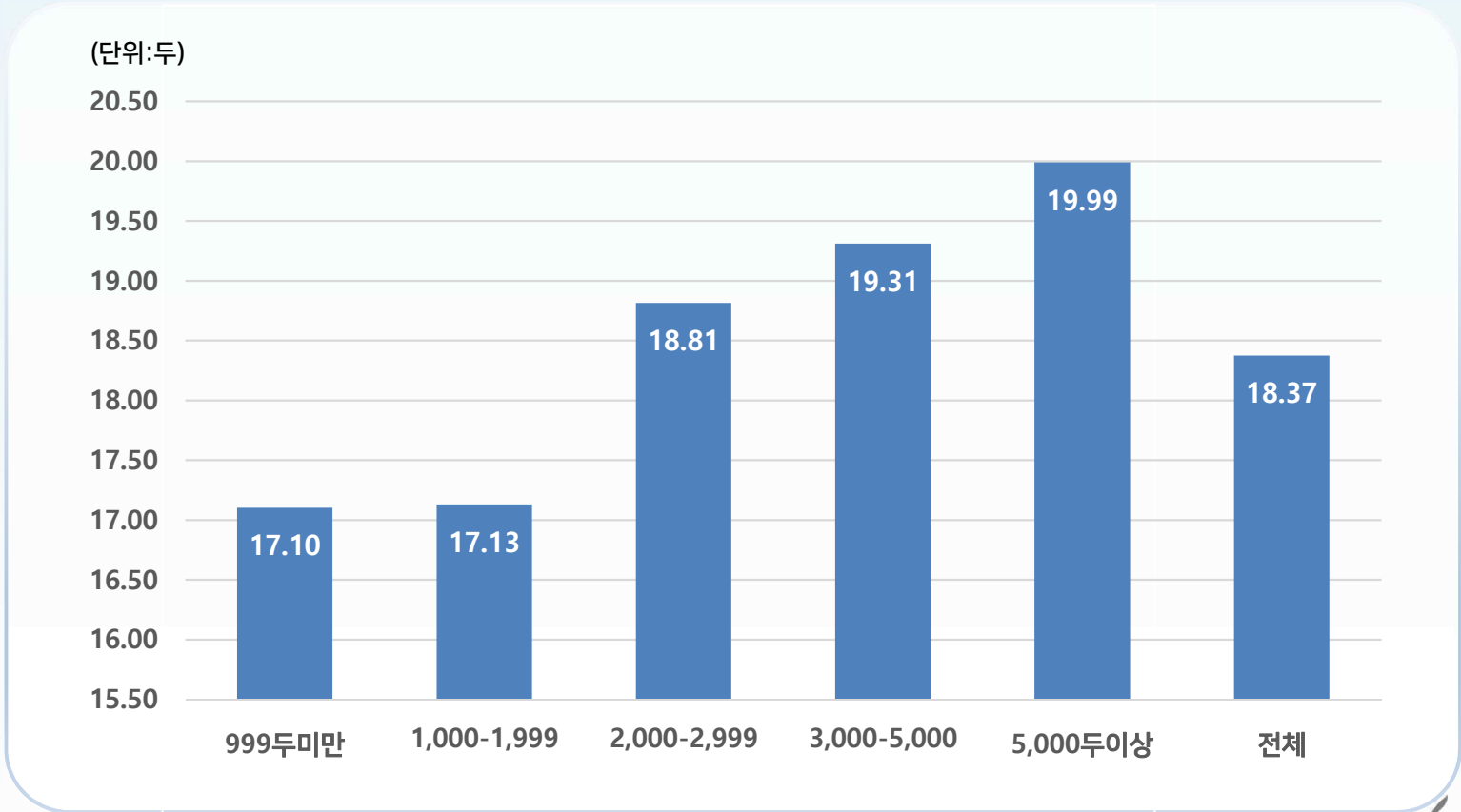
(단위:%)



전체 평균 MSY는 18.37이었음. 응답농가의 MSY 분포는 16두 미만이 27.6%로 가장 많았고, 20~21두가 22.8%, 18~19두 15.3%, 16~17두 15.0%, 22~23두 9.7%, 24두 이상 9.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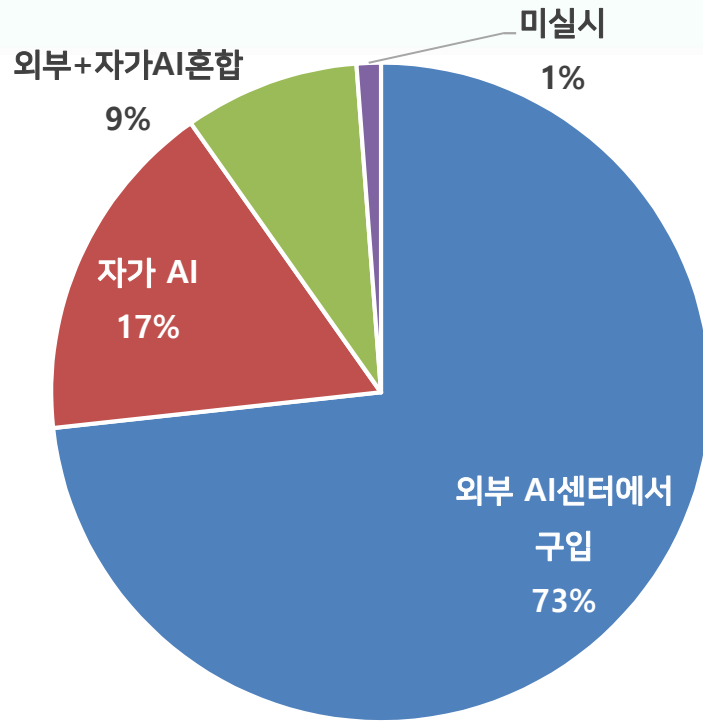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사육규모별 MSY***	999두미만	32	17.1	3.796
	1,000-1,999	106	17.1	3.907
	2,000-2,999	76	18.8	3.538
	3,000-5,000	61	19.3	4.037
	5,000두이상	51	20.0	4.471
	합계	326	18.4	4.070



사육규모별 MSY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MSY는 증가함. 특히 2000천 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폭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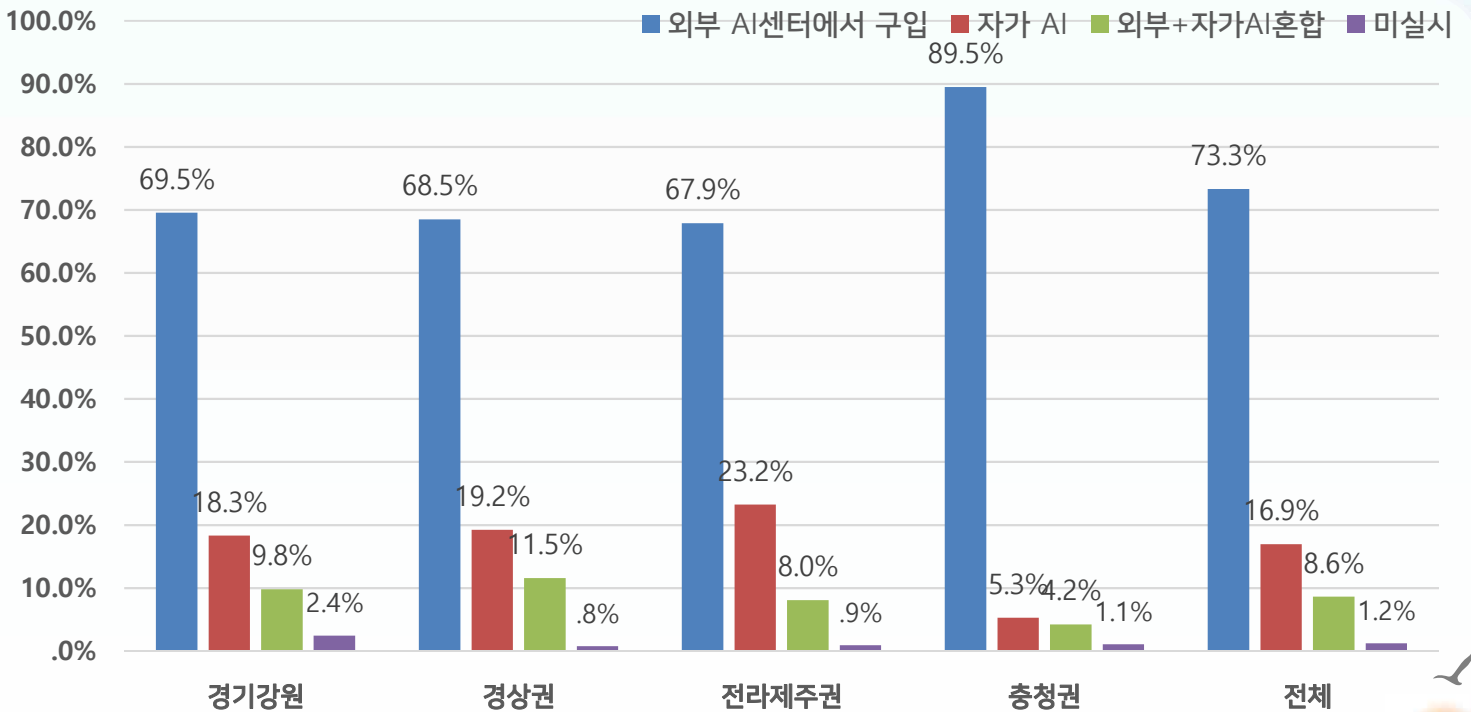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인공수정방법	외부 AI센터에서 구입	307	73.3
	자가 AI	71	16.9
	외부+자가AI혼합	36	8.6
	미실시	5	1.2
	합계	419	100.0



모든 사육 농장에서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 방법은 외부 AI센터에서 구입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 AI 17%, 외부+자가 AI 혼합 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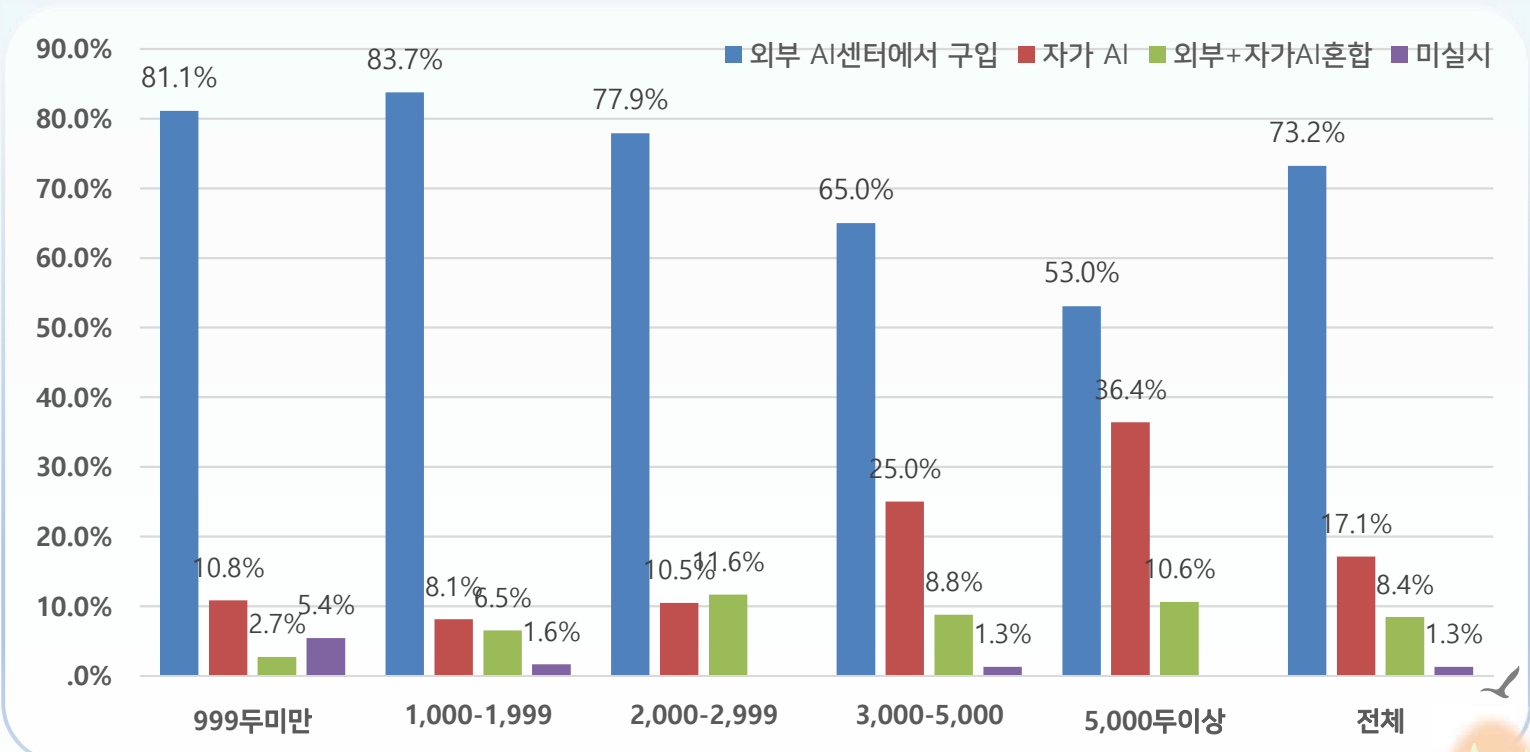
구분**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전체
인공수정방법	외부 AI 센터에서 구입	빈도	57	89	76	85	307
		인공수정%	18.6%	29.0%	24.8%	27.7%	100.0%
		농장소재지%	69.5%	68.5%	67.9%	89.5%	73.3%
	자가 AI	빈도	15	25	26	5	71
		인공수정%	21.1%	35.2%	36.6%	7.0%	100.0%
		농장소재지%	18.3%	19.2%	23.2%	5.3%	16.9%
	외부+자가AI 혼합	빈도	8	15	9	4	36
		인공수정%	22.2%	41.7%	25.0%	11.1%	100.0%
		농장소재지%	9.8%	11.5%	8.0%	4.2%	8.6%
	미 실시	빈도	2	1	1	1	5
		인공수정%	40.0%	20.0%	20.0%	20.0%	100.0%
		농장소재지%	2.4%	0.8%	0.9%	1.1%	1.2%
전체	빈도	82	130	112	95	419	
	인공수정%	19.6%	31.0%	26.7%	22.7%	100.0%	
	농장소재지%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공수정방법은 농장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5%)가 있음. 충청권은 외부 AI 센터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높고 자가 AI 비중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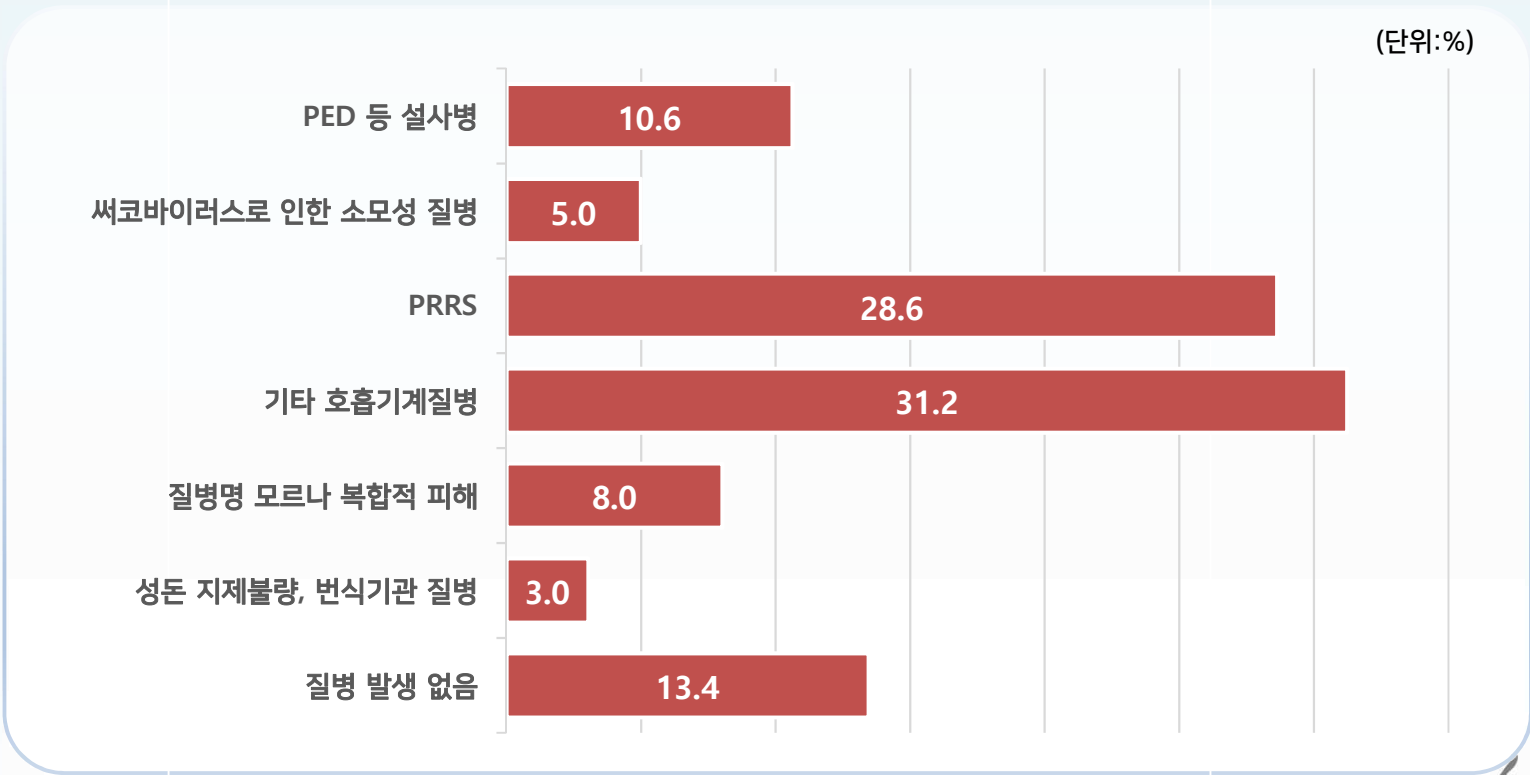
구분***			사육두수					전체
			999두미만	1,000-1,999	2,000-2,999	3,000-5,000	5,000두이상	
인공수정방법	외부 AI 센터에서 구입	빈도	30	103	67	52	35	287
		인공수정%	10.5%	35.9%	23.3%	18.1%	12.2%	100.0%
		사육두수%	81.1%	83.7%	77.9%	65.0%	53.0%	73.2%
	자가 AI	빈도	4	10	9	20	24	67
		인공수정%	6.0%	14.9%	13.4%	29.9%	35.8%	100.0%
		사육두수%	10.8%	8.1%	10.5%	25.0%	36.4%	17.1%
	외부+자가 AI혼합	빈도	1	8	10	7	7	33
		인공수정%	3.0%	24.2%	30.3%	21.2%	21.2%	100.0%
		사육두수%	2.7%	6.5%	11.6%	8.8%	10.6%	8.4%
	미 실시	빈도	2	2	0	1	0	5
		인공수정%	40.0%	40.0%	0%	20.0%	0%	100.0%
		사육두수%	5.4%	1.6%	0%	1.3%	0%	1.3%
전체	빈도	37	123	86	80	66	392	
	인공수정%	9.4%	31.4%	21.9%	20.4%	16.8%	100.0%	
	사육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공수정방법은 사육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외부 AI 센터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자가 AI 비중이 늘어남. 999두 미만의 경우 인공수정을 미 실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지난 2년간 가장 피해가 컸던 질병	PED 등 설사병	49	10.6
	썬코바이러스로 인한 소모성 질병	23	5.0
	PRRS	132	28.6
	기타 호흡기계질병	144	31.2
	질병명 모르나 복합적 피해	37	8.0
	성돈 지체불량, 번식기관 질병	14	3.0
	질병 발생 없음	62	13.4
	합계	4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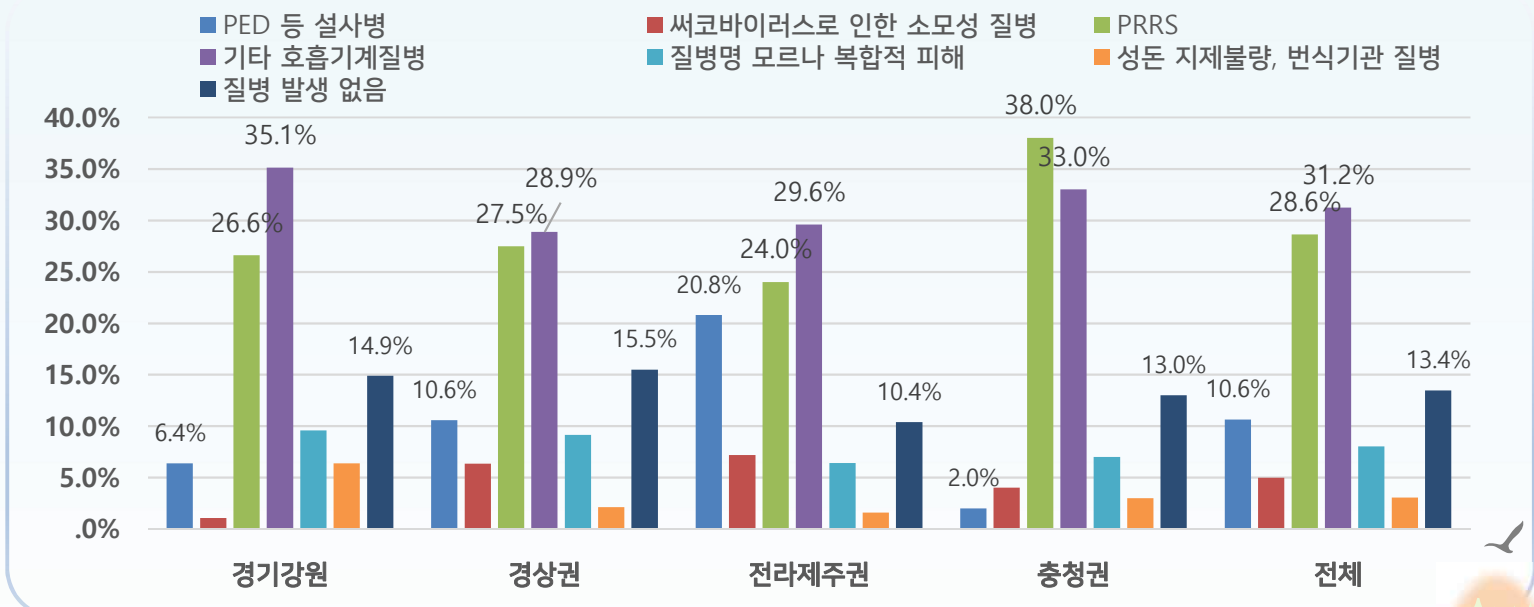
지난 2년간(2021~2022년) 농장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질병은 기타 호흡기계 질병이 31.2%로 나타났으며, PRRS(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28.6%, PED(돼지 유행성설사병) 등 설사병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질병발생 없음은 13.4%로 나타남.



# 최근 2년 피해가 컸던 질병X농장소재지

## 생산성 조사

구분***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전체
PED 등 설사병	빈도	6	15	26	2	49
	질병%	12.2%	30.6%	53.1%	4.1%	100.0%
	농장소재지%	6.4%	10.6%	20.8%	2.0%	10.6%
썬코바이러스로 인한 소모성 질병	빈도	1	9	9	4	23
	질병%	4.3%	39.1%	39.1%	17.4%	100.0%
	농장소재지%	1.1%	6.3%	7.2%	4.0%	5.0%
PRRS	빈도	25	39	30	38	132
	질병%	18.9%	29.5%	22.7%	28.8%	100.0%
	농장소재지%	26.6%	27.5%	24.0%	38.0%	28.6%
기타 호흡기계질병	빈도	33	41	37	33	144
	질병%	22.9%	28.5%	25.7%	22.9%	100.0%
	농장소재지%	35.1%	28.9%	29.6%	33.0%	31.2%
질병명 모르나 복합적 피해	빈도	9	13	8	7	37
	질병%	24.3%	35.1%	21.6%	18.9%	100.0%
	농장소재지%	9.6%	9.2%	6.4%	7.0%	8.0%
성돈 지체불량, 번식기관 질병	빈도	6	3	2	3	14
	질병%	42.9%	21.4%	14.3%	21.4%	100.0%
	농장소재지%	6.4%	2.1%	1.6%	3.0%	3.0%
질병 발생 없음	빈도	14	22	13	13	62
	질병%	22.6%	35.5%	21.0%	21.0%	100.0%
	농장소재지%	14.9%	15.5%	10.4%	13.0%	13.4%
전체	빈도	94	142	125	100	461
	질병%	20.4%	30.8%	27.1%	21.7%	100.0%
	농장소재지%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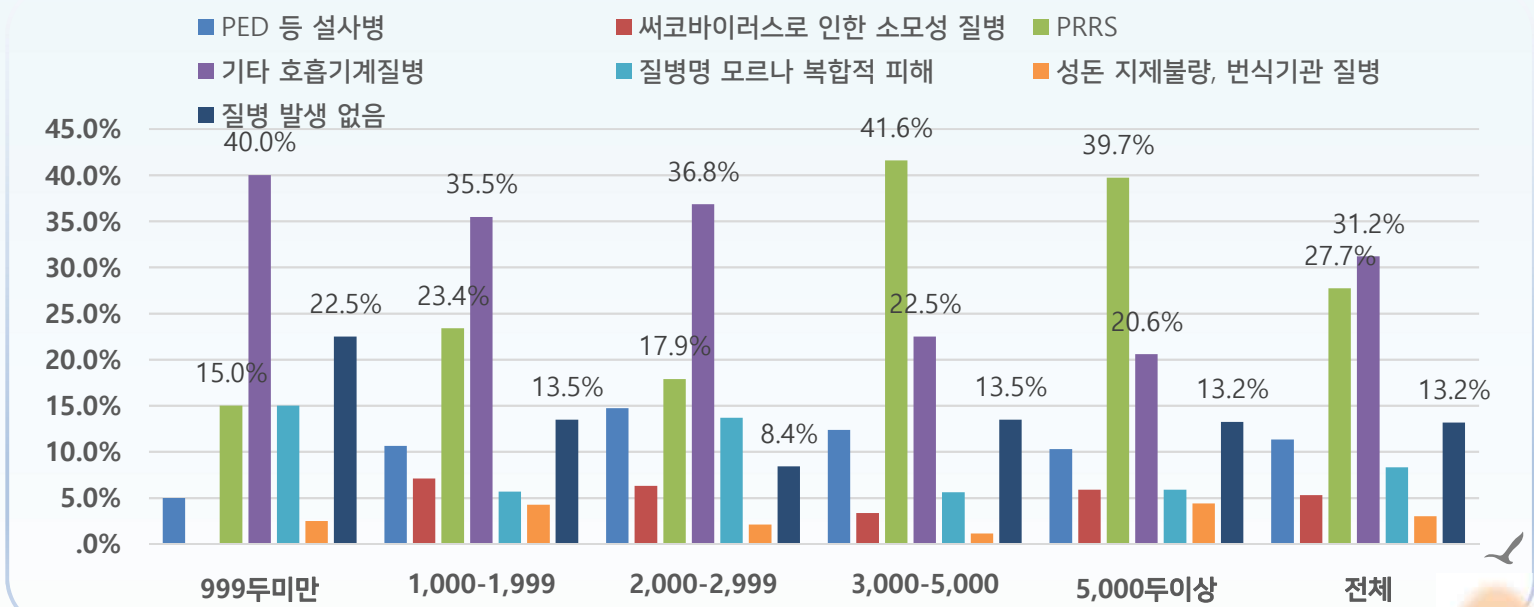
질병피해상황은 농장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전남제주권은 PED 등 설사병 피해가 컸던 반면 충청권은 피해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강원권은 성돈지체불량, 번식기관질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2년 피해가 컸던 질병X사육규모

## 생산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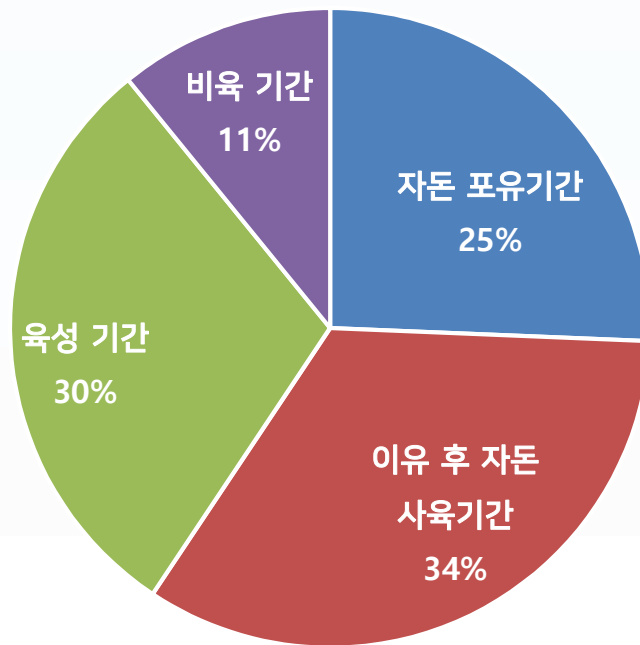
구분***	사육두수						전체
	999두미만	1,000-1,999	2,000-2,999	3,000-5,000	5,000두이상		
PED 등 설사병	빈도	2	15	14	11	7	49
	질병%	4.1%	30.6%	28.6%	22.4%	14.3%	100.0%
	사육두수%	5.0%	10.6%	14.7%	12.4%	10.3%	11.3%
썬코바이러스로 인한 소모성 질병	빈도	0	10	6	3	4	23
	질병%	0%	43.5%	26.1%	13.0%	17.4%	100.0%
	사육두수%	0%	7.1%	6.3%	3.4%	5.9%	5.3%
PRRS	빈도	6	33	17	37	27	120
	질병%	5.0%	27.5%	14.2%	30.8%	22.5%	100.0%
	사육두수%	15.0%	23.4%	17.9%	41.6%	39.7%	27.7%
기타 호흡기계 질병	빈도	16	50	35	20	14	135
	질병%	11.9%	37.0%	25.9%	14.8%	10.4%	100.0%
	사육두수%	40.0%	35.5%	36.8%	22.5%	20.6%	31.2%
질병명 모르나 복합적 피해	빈도	6	8	13	5	4	36
	질병%	16.7%	22.2%	36.1%	13.9%	11.1%	100.0%
	사육두수%	15.0%	5.7%	13.7%	5.6%	5.9%	8.3%
성돈 지체불량, 번식기관 질병	빈도	1	6	2	1	3	13
	질병%	7.7%	46.2%	15.4%	7.7%	23.1%	100.0%
	사육두수%	2.5%	4.3%	2.1%	1.1%	4.4%	3.0%
질병 발생 없음	빈도	9	19	8	12	9	57
	질병%	15.8%	33.3%	14.0%	21.1%	15.8%	100.0%
	사육두수%	22.5%	13.5%	8.4%	13.5%	13.2%	13.2%
전체	빈도	40	141	95	89	68	433
	질병%	9.2%	32.6%	21.9%	20.6%	15.7%	100.0%
	사육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질병피해상황은 사육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3000두 이상인 경우 PRRS(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피해가 컸으며, 3000두 미만인 경우에는 기타 호흡기계질병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한편 999두미만 농가의 질병발생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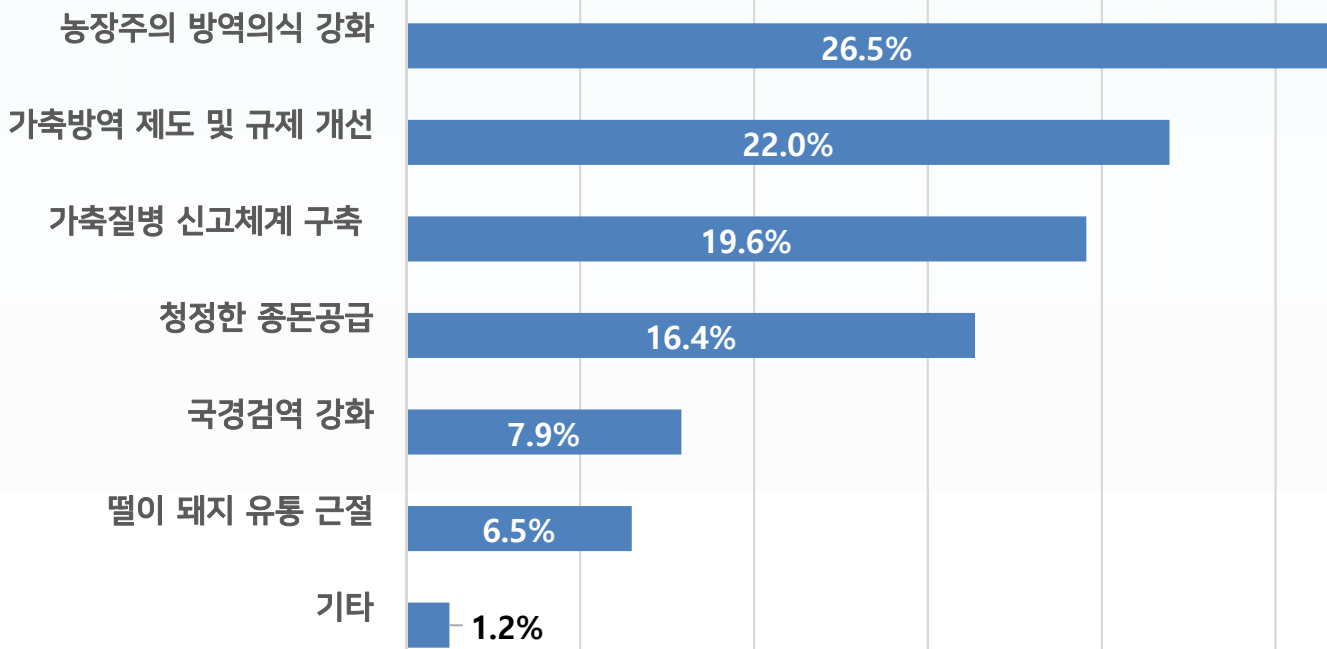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지난 2년간 사고 및 폐사 가장 심각했던 단계	자돈 포유기간	118	25.7
	이유 후 자돈 사육기간	155	33.7
	육성 기간	137	29.8
	비육 기간	50	10.9
	합계	460	100.0



지난 2년간(2021~2022년) 사육단계별로 사고 및 폐사율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단계는 이유 후 자돈 사육기간(이유 후~25kg)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성기간(25~60kg) 30%, 자돈 포유기간 25%, 비육기간(60kg 이후) 11% 순으로 나타남.



		응답 수	퍼센트(%)
가축질병 근절조치	농장주의 방역의식 강화	298	26.5%
	가축방역 제도 및 규제 개선	247	22.0%
	가축질병 신고체계 구축	220	19.6%
	청정한 종돈공급	184	16.4%
	국경검역 강화	89	7.9%
	떨이 돼지 유통 근절	73	6.5%
	기타	14	1.2%
	합계	11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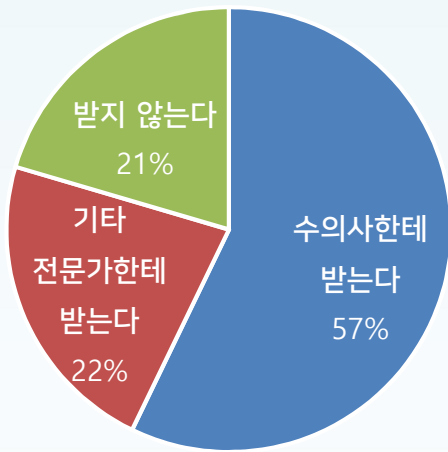


방역 및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응답은 '농장주의 방역의식 강화'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축방역제도 및 규제개선 22.0%, 가축질병 신고체계 구축(신고 및 발생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 19.6%, 청정한 종돈공급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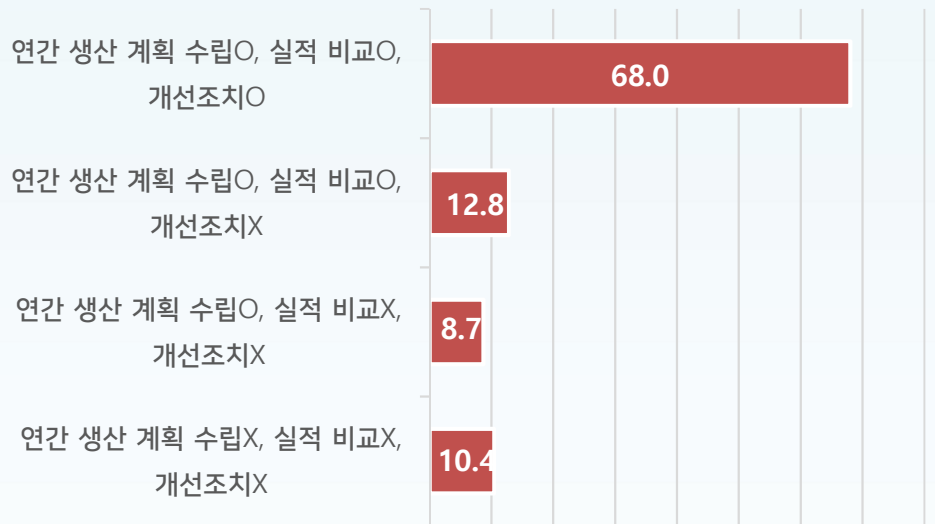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질병 및 사양관리 정기적인 컨설팅	수의사한테 받는다	263	57.2
	기타 전문가한테 받는다	103	22.4
	받지 않는다	94	20.4
	합계	460	100.0
연간 생산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비교하여 개선조치(관리)한다	313	68.0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비교는 하지만 관리하지 않는다	59	12.8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적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40	8.7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48	10.4
	합계	460	100.0

<정기적 컨설팅>



<연간 생산계획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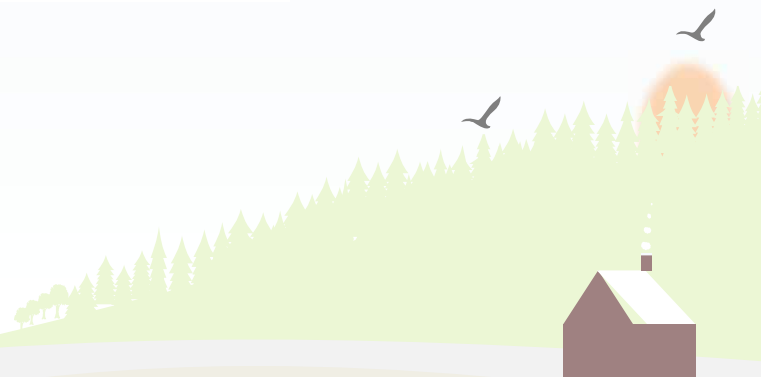


질병 및 사양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컨설팅에 대한 응답은 수의사한테 받다가 57%, 기타 전문가한테 받는다 22%, 받지않는다 2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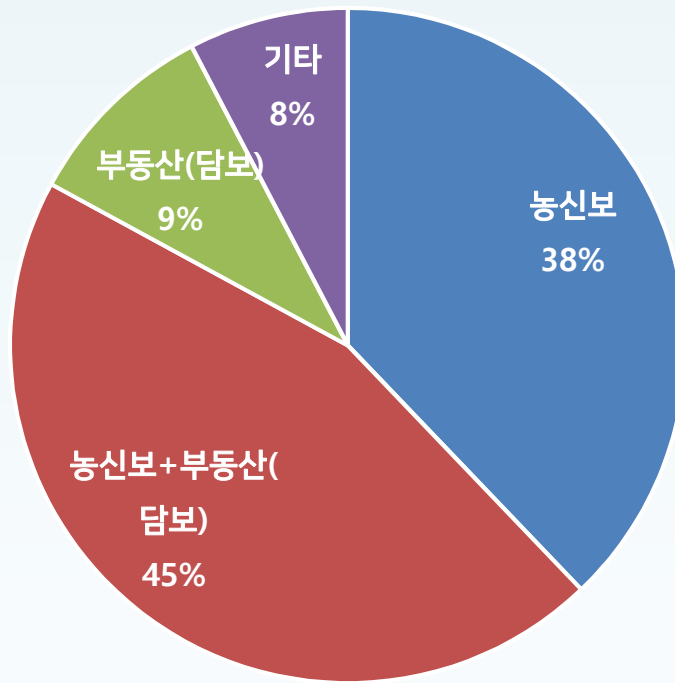
연간 생산계획(목표)를 수립하고 실적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연간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비교하여 개선조치한다가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I. 개요
- II. 응답자 기본사항
- III. 생산성 조사
- IV. 수익성 조사**
- V. 유통 및 계열화
- VI. 기타 의향조사
- VII. 동물복지 및 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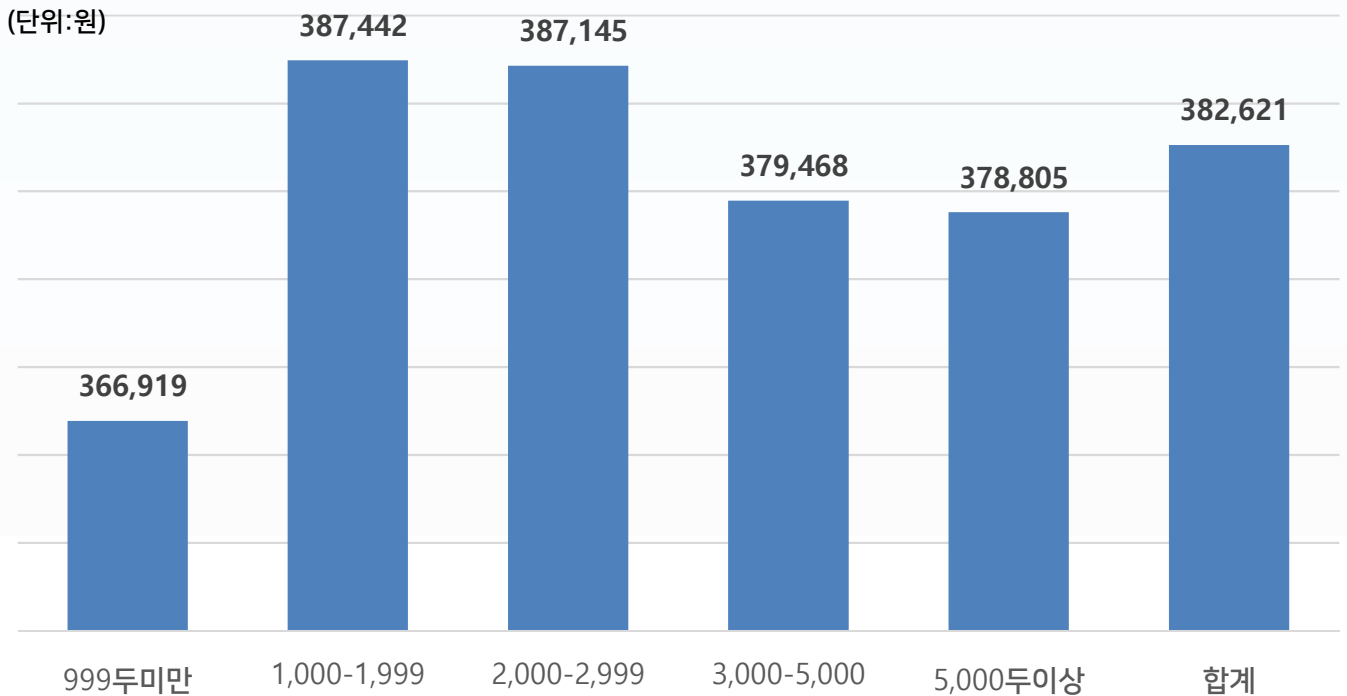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담보설정방법	농신보	173	37.9
	농신보+부동산(담보)	206	45.1
	부동산(담보)	43	9.4
	기타	35	7.7
	합계	457	100.0



농장에서 정부 정책자금 대출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은 농신보+부동산(담보)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농신보 37.9%, 부동산(담보) 9.4%, 기타 7.7% 순으로 나타남.



			N	평균	표준편차
비육돈 생산비용	사육규모	999두미만	28	366919.36	73601.013
		1,000-1,999	99	387442.10	56634.631
		2,000-2,999	76	387144.92	60517.259
		3,000-5,000	58	379467.76	61539.542
		5,000두이상	52	378805.10	52098.536
		합계	313	382621.47	59421.806
	MSY	16두미만	83	388962.10	65149.030
		16-17	50	384164.00	69104.519
		18-19	42	386547.62	52913.737
		20-21	67	370742.42	57194.080
		22-23	29	393913.79	52686.077
		24두이상	25	369448.92	44369.308
		합계	296	382522.02	59923.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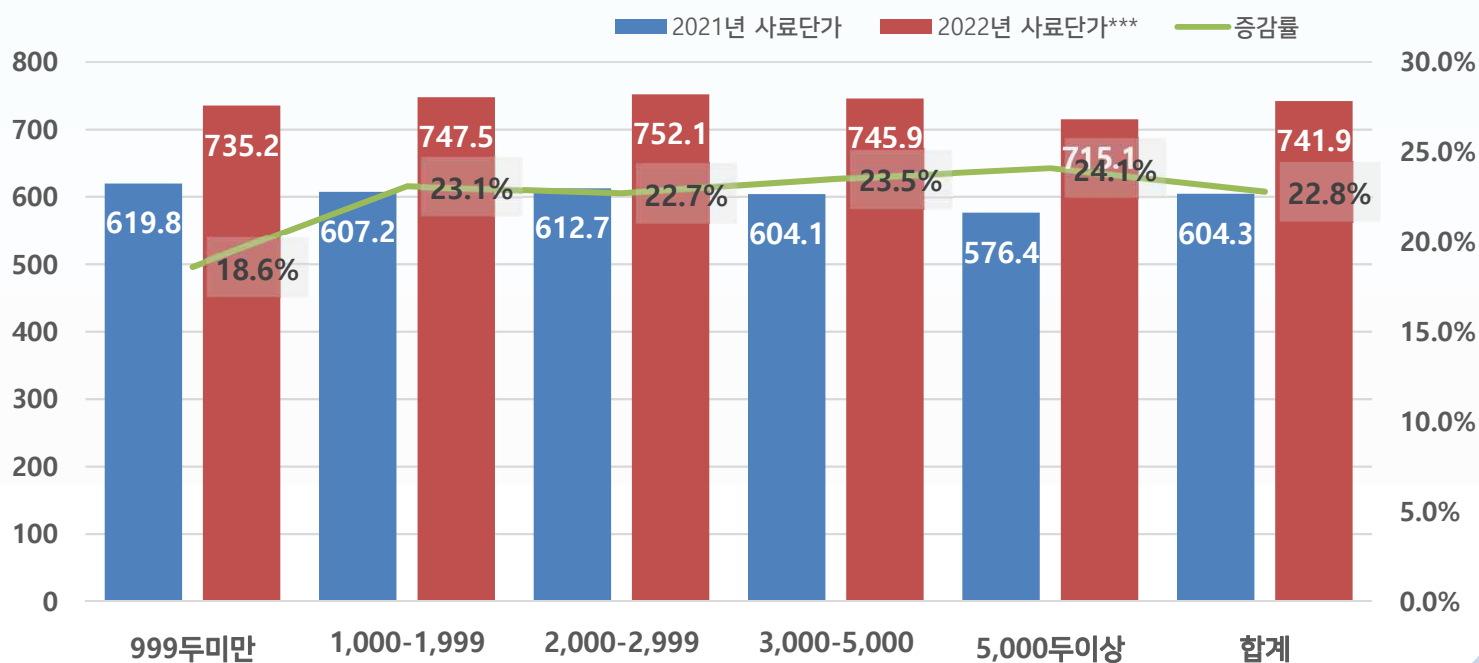
비육돈 1마리 출하하기 위해 소요되는 생산비용(자가인건비, 영업외 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은 약 38만 2천원임. 사육규모별로는 1000~2999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999두 미만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사육규모	2021년 사료단가	2022년 사료단가***	증감률
999두미만	619.8	735.2	18.6%
1,000-1,999	607.2	747.5	23.1%
2,000-2,999	612.7	752.1	22.7%
3,000-5,000	604.1	745.9	23.5%
5,000두이상	576.4	715.1	24.1%
합계	604.3	741.9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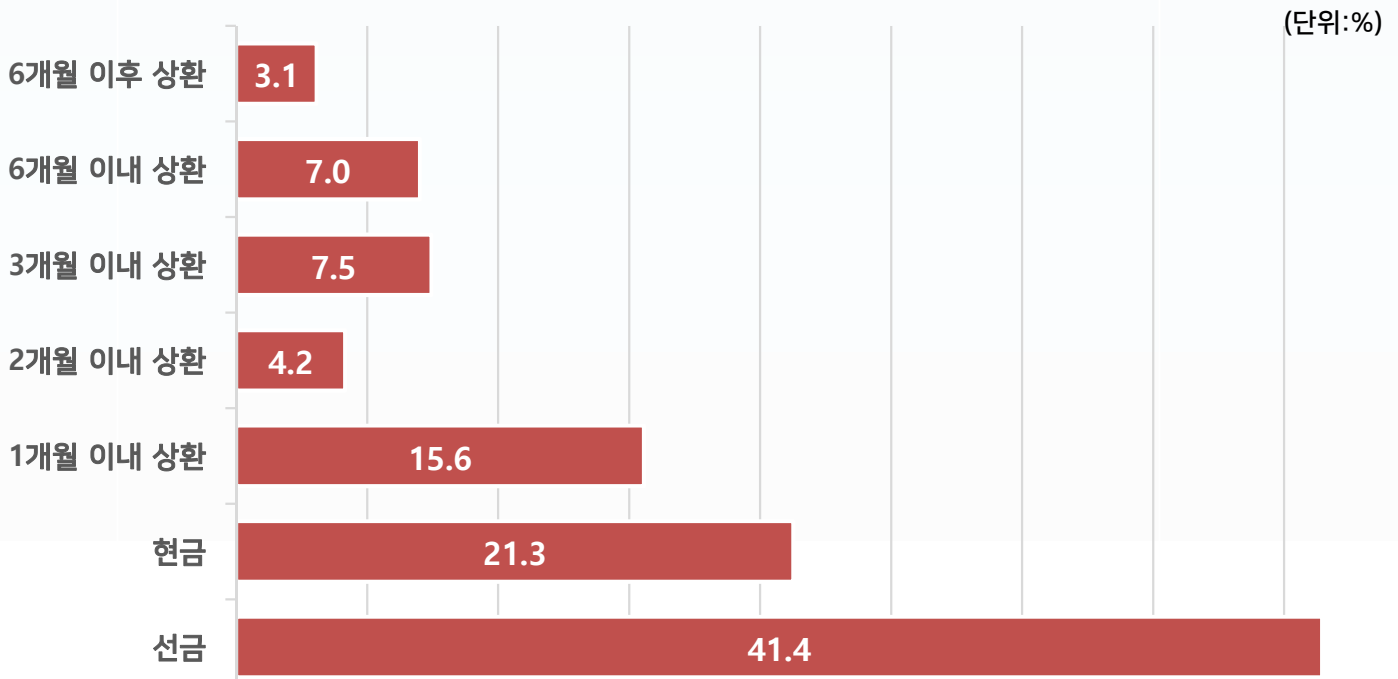
(단위:원/kg)



농장에서 사용하는 배합사료 평균 kg당 단가는 2021년 604원, 2022년 741.9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8% 상승하였음. 2022년 사료단가는 사육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5%)가 있음. 5000두 이상 농가의 사료단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00~2999두 규모 농가의 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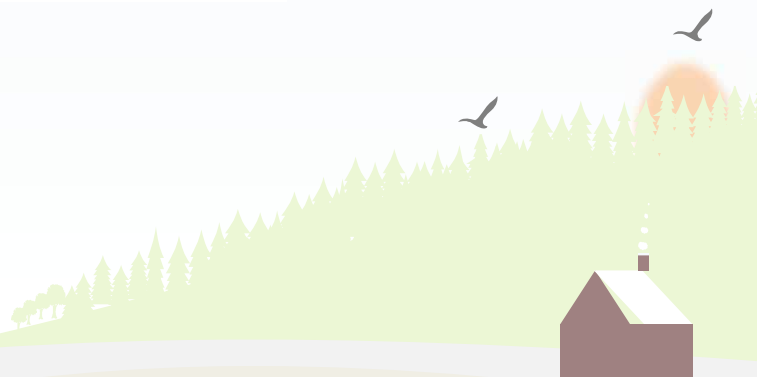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사료정산방법	선금	189	41.4
	현금	97	21.3
	1개월 이내 상환	71	15.6
	2개월 이내 상환	19	4.2
	3개월 이내 상환	34	7.5
	6개월 이내 상환	32	7.0
	6개월 이후 상환	14	3.1
	합계	456	100.0



농장에서 구입한 사료에 대한 정산 방법은 선금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현금 21.3%, 1개월 이내 상환 15.6%, 3개월 이내 상환 및 6개월 이내 상환이 각각 7.5%, 7.0%로 나타남.



- I. 개요
- II. 응답자 기본사항
- III. 생산성 조사
- IV. 수익성 조사
- V. 유통 및 계열화**
- VI. 기타 의향조사
- VII. 동물복지 및 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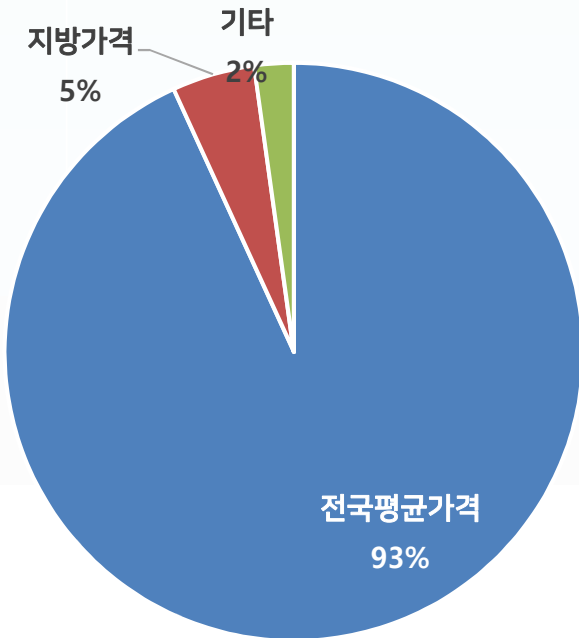


# 돼지 가격 정산시 기준 가격 및 가격 적용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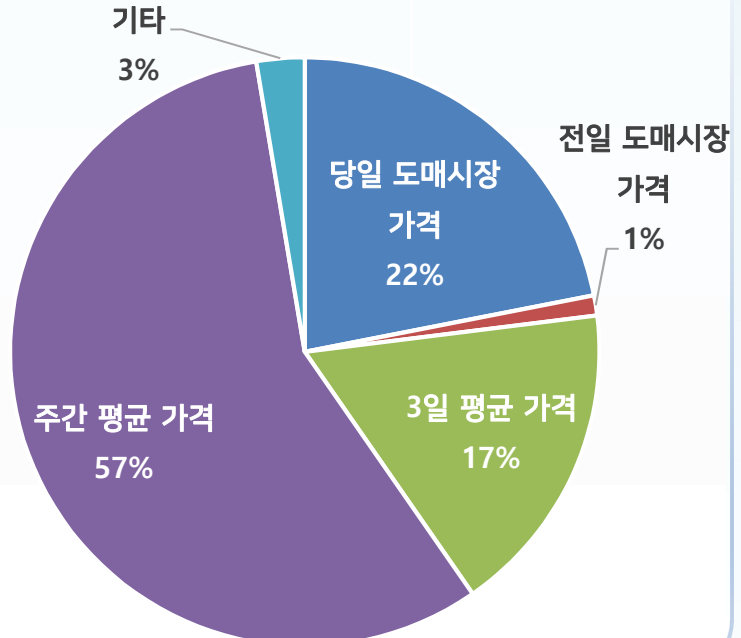
유통 및 계열화

		농가 수	유효 퍼센트(%)
가격정산방법	전국평균가격	423	93.2
	지방가격	21	4.6
	기타	10	2.2
	합계	454	100.0
가격적용기간	당일 도매시장 가격	100	21.9
	전일 도매시장 가격	5	1.1
	3일 평균 가격	79	17.3
	주간 평균 가격	260	57.0
	기타	12	2.6
	합계	456	100.0

<가격정산방법>



<가격적용기간>



농장에서 돼지 가격 정산시 적용받는 기준 가격은 전국평균가격(제주제외, 제주포함 모두 해당)이 93.2%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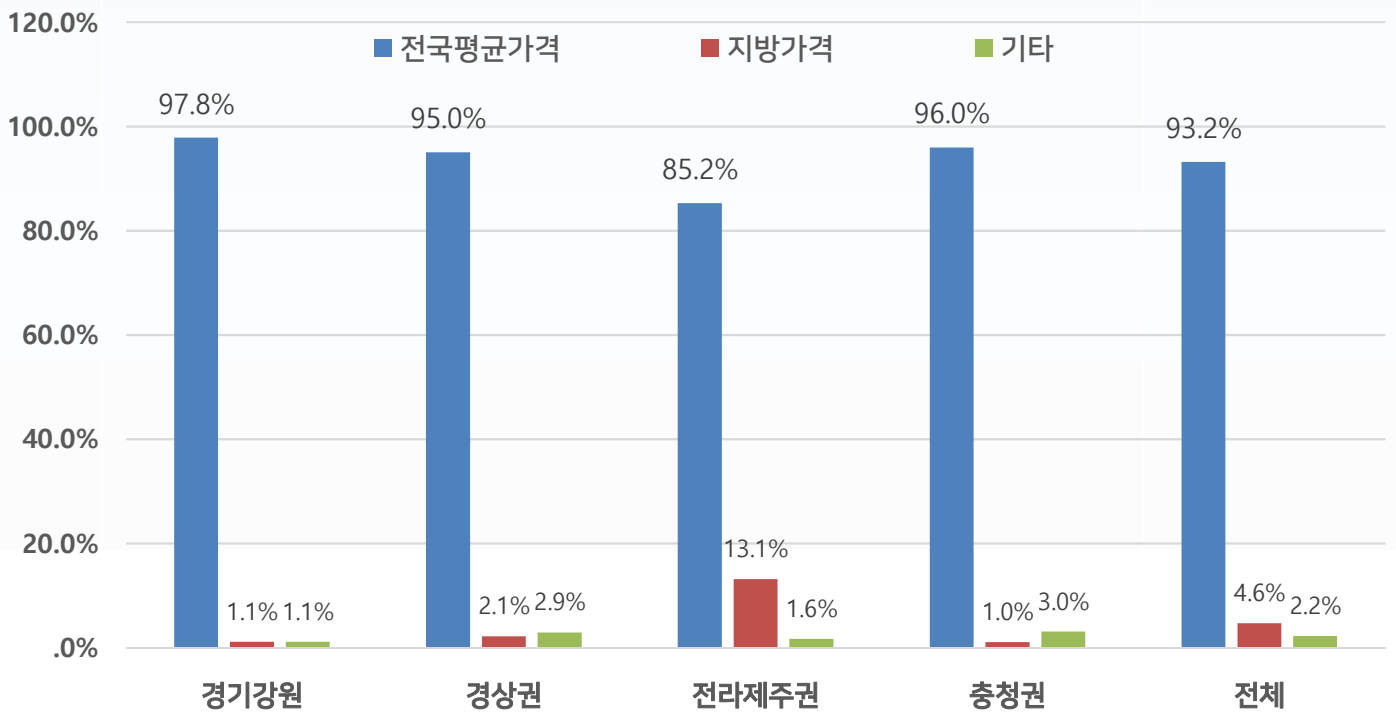
돼지 가격 정산시 가격 적용 기간은 주간 평균가격이 57.0%로 가장 높았으며, 당일 도매시장 가격 21.9%, 3일 평균가격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돼지 가격 정산시 기준 가격X농장소재지

유통 및 계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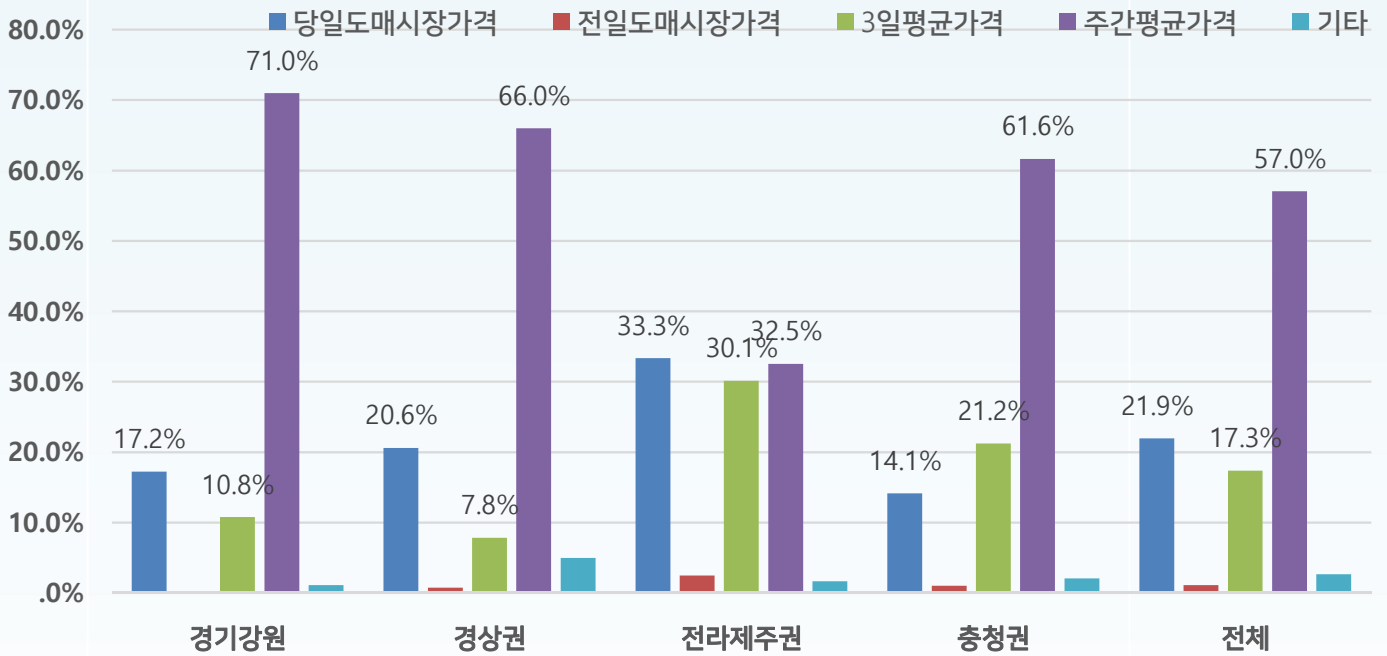
구분***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전체	
가격 정산 방법	전국평균가격	빈도	91	133	104	95	423
		정산방법%	21.5%	31.4%	24.6%	22.5%	100.0%
		농장소재지%	97.8%	95.0%	85.2%	96.0%	93.2%
	지방가격	빈도	1	3	16	1	21
		정산방법%	4.8%	14.3%	76.2%	4.8%	100.0%
		농장소재지%	1.1%	2.1%	13.1%	1.0%	4.6%
	기타	빈도	1	4	2	3	10
		정산방법%	10.0%	40.0%	20.0%	30.0%	100.0%
		농장소재지%	1.1%	2.9%	1.6%	3.0%	2.2%
	전체	빈도	93	140	122	99	454
		정산방법%	20.5%	30.8%	26.9%	21.8%	100.0%
		농장소재지%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격정산방법은 농장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전라제주권에서는 지방가격을 적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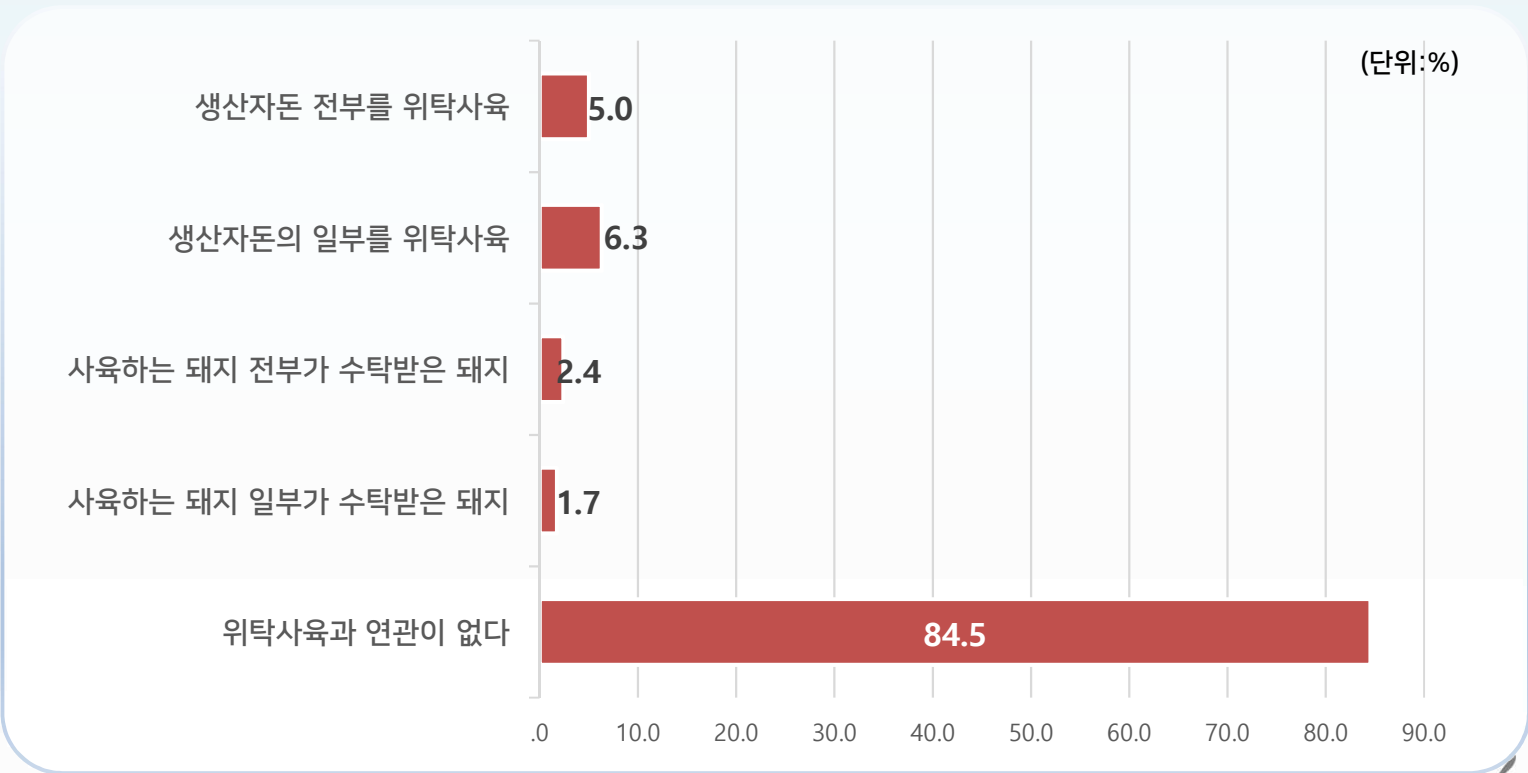
구분***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전체	
가격 적용기간	당일도매시장가격	빈도	16	29	41	14	100
		적용기간%	16.0%	29.0%	41.0%	14.0%	100.0%
		농장소재지%	17.2%	20.6%	33.3%	14.1%	21.9%
	전일 도매시장가격	빈도	0	1	3	1	5
		적용기간%	0%	20.0%	60.0%	20.0%	100.0%
		농장소재지%	0%	0.7%	2.4%	1.0%	1.1%
	3일평균가격	빈도	10	11	37	21	79
		적용기간%	12.7%	13.9%	46.8%	26.6%	100.0%
		농장소재지%	10.8%	7.8%	30.1%	21.2%	17.3%
	주간평균가격	빈도	66	93	40	61	260
		적용기간%	25.4%	35.8%	15.4%	23.5%	100.0%
		농장소재지%	71.0%	66.0%	32.5%	61.6%	57.0%
기타	빈도	1	7	2	2	12	
	적용기간%	8.3%	58.3%	16.7%	16.7%	100.0%	
	농장소재지%	1.1%	5.0%	1.6%	2.0%	2.6%	
전체	빈도	93	141	123	99	456	
	적용기간%	20.4%	30.9%	27.0%	21.7%	100.0%	
	농장소재지%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격적용기간은 농장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주간평균가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당일 도매시장가격과 3일 평균가격 적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경기강원과 경상권은 주간평균가격 적용 비중이 높은 반면 3일평균가격 적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농가 수	유효 퍼센트(%)
비육돈 위탁사육	생산자돈 전부를 위탁사육	23	5.0
	생산자돈의 일부를 위탁사육	29	6.3
	사육하는 돼지 전부가 수탁받은 돼지	11	2.4
	사육하는 돼지 일부가 수탁받은 돼지	8	1.7
	위탁사육과 연관이 없다	388	84.5
	합계	459	100.0



농장의 비육돈 위탁사육현황은 위탁사육과 연관이 없는 경우가 8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자돈의 일부를 위탁사육 6.3%, 생산자돈 전부를 위탁사육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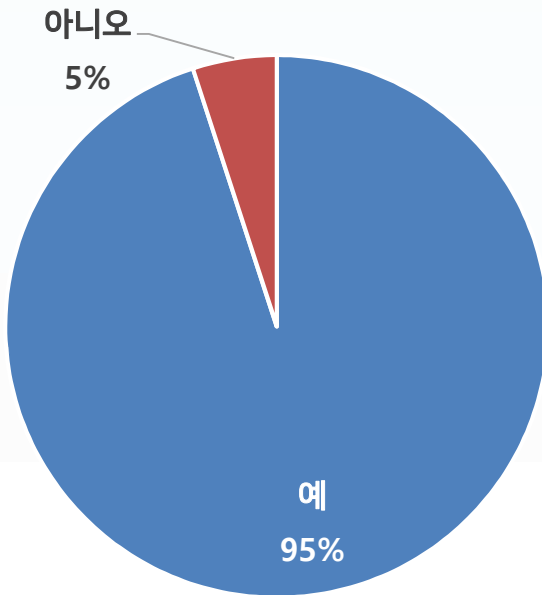


- I. 개요
- II. 응답자 기본사항
- III. 생산성 조사
- IV. 수익성 조사
- V. 유통 및 계열화
- VI. 기타 의향조사**
- VII. 동물복지 및 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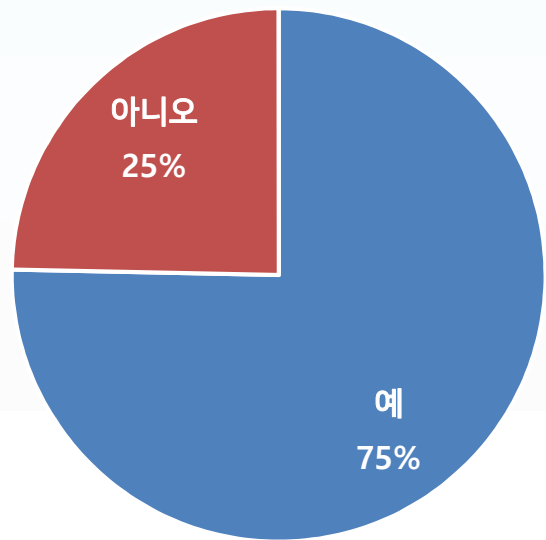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손해보험 가입	예	436	95.0
	아니오	23	5.0
	합계	459	100.0
가축보험특약 가입	예	345	75.3
	아니오	113	24.7
	합계	458	100.0

<손해보험 가입여부>



<가축보험특약 가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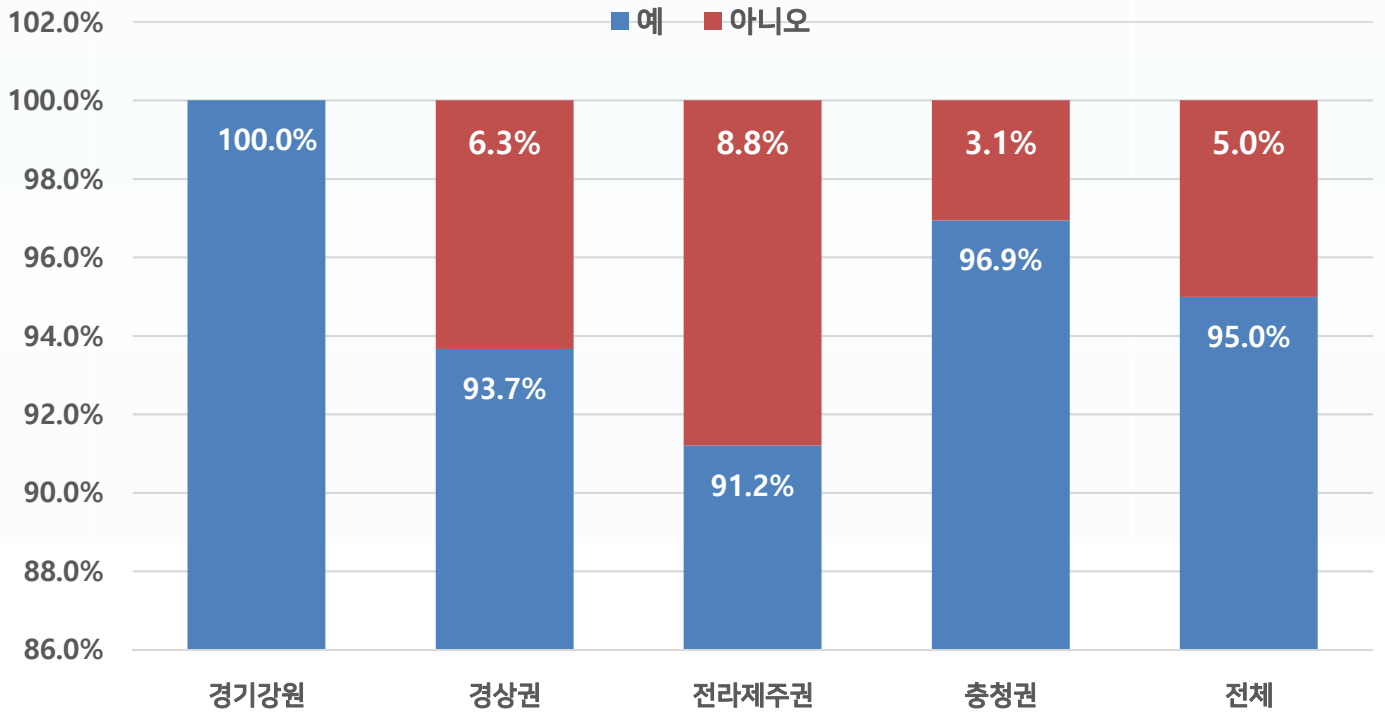


돈사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손해보험(가축보험 포함)에 가입한 농장은 95.5로 대부분을 차지함.

질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한 가축보험특약(PED 등)에 가입한 농장은 75%였으며, 가입을 안한 농장은 2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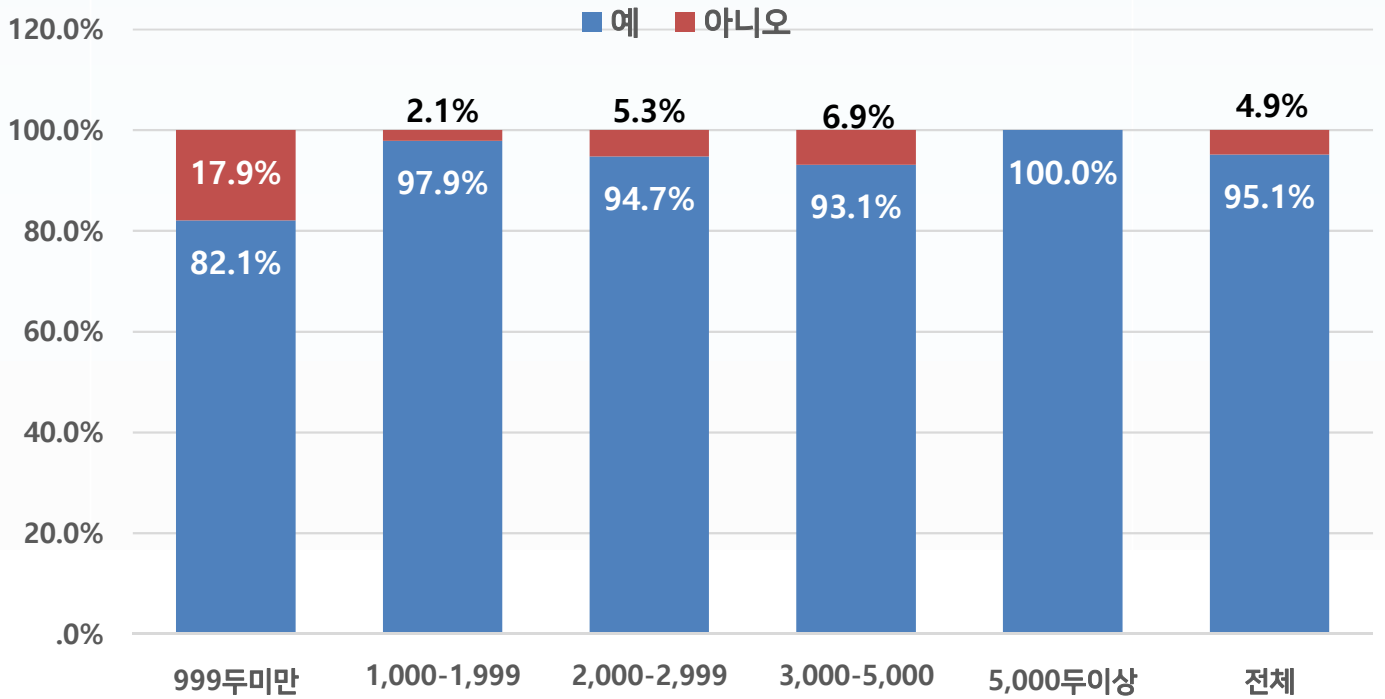
구분**			농장소재지				
			경기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전체
손해 보험 가입	예	빈도	94	133	114	95	436
		가입%	21.6%	30.5%	26.1%	21.8%	100.0%
		농장소재지%	100.0%	93.7%	91.2%	96.9%	95.0%
	아니오	빈도	0	9	11	3	23
		가입%	0%	39.1%	47.8%	13.0%	100.0%
		농장소재지%	0%	6.3%	8.8%	3.1%	5.0%
	전체	빈도	94	142	125	98	459
		가입%	20.5%	30.9%	27.2%	21.4%	100.0%
		농장소재지%	100.0%	100.0%	100.0%	100.0%	100.0%



손해보험가입 여부는 농장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5%)가 있음. 전라제주권의 미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기강원은 가입률 1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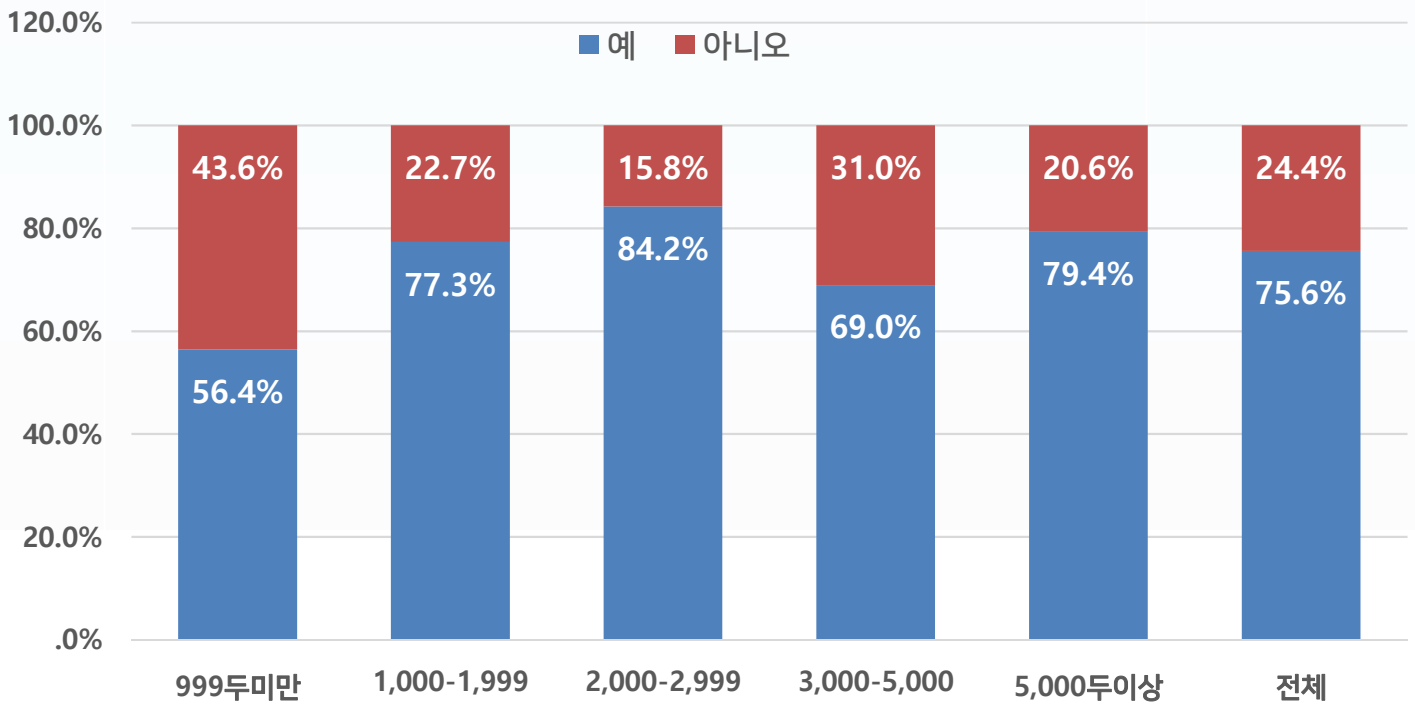
구분***								
			999두미만	1,000-1,999	2,000-2,999	3,000-5,000	5,000두 이상	전체
손해 보험 가입	예	빈도	32	139	90	81	68	410
		가입%	7.8%	33.9%	22.0%	19.8%	16.6%	100.0%
		사육규모%	82.1%	97.9%	94.7%	93.1%	100.0%	95.1%
	아니오	빈도	7	3	5	6	0	21
		가입%	33.3%	14.3%	23.8%	28.6%	0%	100.0%
		사육규모%	17.9%	2.1%	5.3%	6.9%	0%	4.9%
	전체	빈도	39	142	95	87	68	431
		가입%	9.0%	32.9%	22.0%	20.2%	15.8%	100.0%
		사육규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손해보험가입 여부는 사육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5000두 이상인 경우 가입률은 100%였으며, 999두 미만 농장의 경우 미가입률이 17.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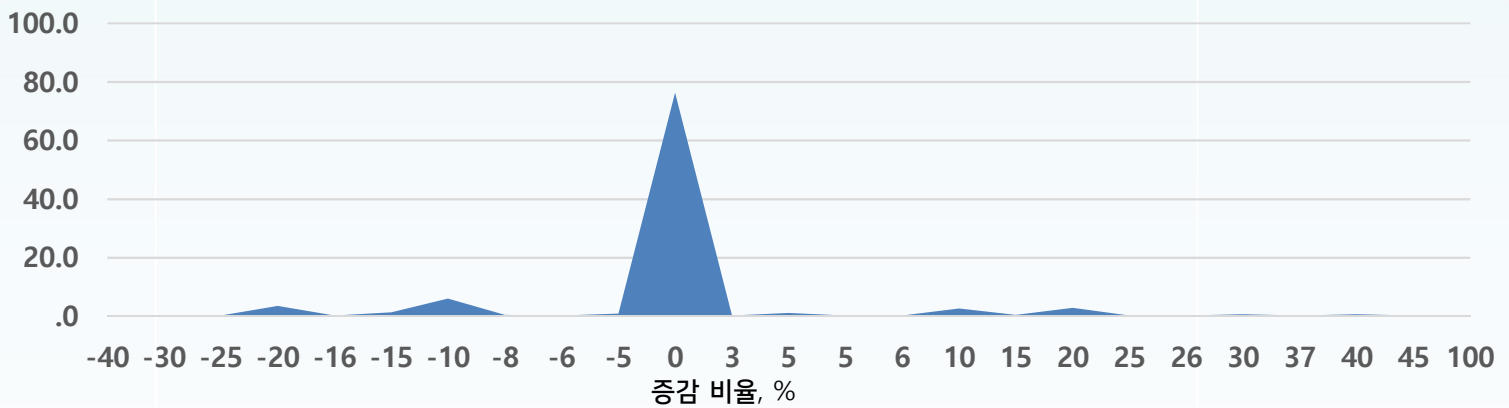
구분***								전체
			999두 미만	1,000-1,999	2,000-2,999	3,000-5,000	5,000두 이상	
가축보험특약 가입	예	빈도	22	109	80	60	54	325
		가입%	6.8%	33.5%	24.6%	18.5%	16.6%	100.0%
		사육규모%	56.4%	77.3%	84.2%	69.0%	79.4%	75.6%
	아니오	빈도	17	32	15	27	14	105
		가입%	16.2%	30.5%	14.3%	25.7%	13.3%	100.0%
		사육규모%	43.6%	22.7%	15.8%	31.0%	20.6%	24.4%
	전체	빈도	39	141	95	87	68	430
		가입%	9.1%	32.8%	22.1%	20.2%	15.8%	100.0%
		사육규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축보험특약 가입 여부는 사육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999두 미만인 경우 가입률이 56.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00두~2999두 농장의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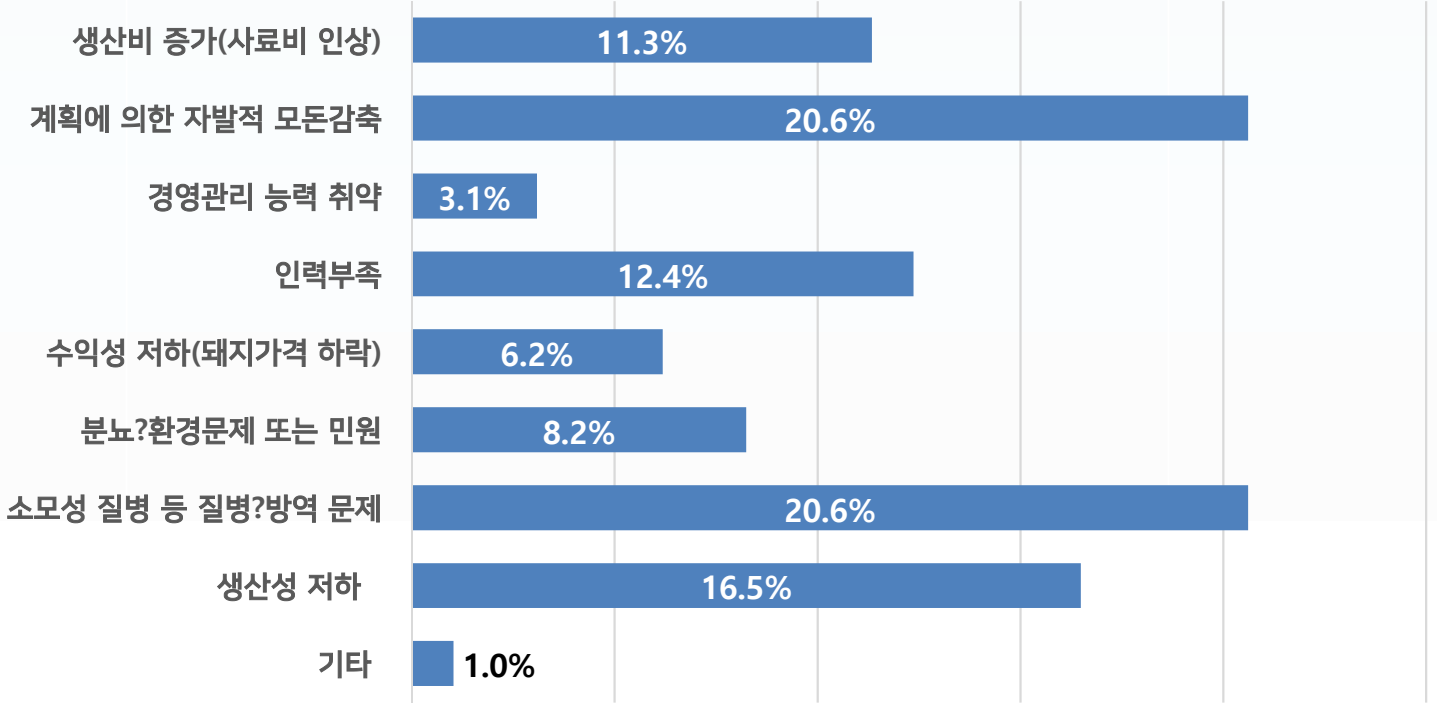
증감	증감 비율	빈도	유효 퍼센트
감소	-40	1	0.2
	-30	1	0.2
	-25	1	0.2
	-20	16	3.6
	-16	1	0.2
	-15	6	1.3
	-10	27	6.0
	-8	2	0.4
	-6	1	0.2
	-5	4	0.9
유지	0	343	76.4
증가	3	1	0.2
	5	5	1.1
	5	1	0.2
	6	1	0.2
	10	12	2.7
	15	2	0.4
	20	13	2.9
	25	1	0.2
	26	1	0.2
	30	3	0.7
	37	1	0.2
	40	3	0.7
	45	1	0.2
	100	1	0.2



최근 1년간 사육두수 변화에 대한 응답은 동일하게 유지한 농가가 76.4%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시킨다는 농가는 10.2%, 감소시킨다는 농가는 13.4%였음. 확대 및 감소 산출 결과, 약 0.13% 사육두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농가 수	유효 퍼센트(%)
사육 감소 이유	생산성 저하	16	16.5%
	생산비 증가(사료비 인상)	11	11.3%
	소모성 질병 등 질병·방역 문제	20	20.6%
	분뇨·환경문제 또는 민원	8	8.2%
	수익성 저하(돼지가격 하락)	6	6.2%
	인력부족	12	12.4%
	경영관리 능력 취약	3	3.1%
	계획에 의한 자발적 모돈감축	20	20.6%
	기타	1	1.0%
	전체	97	100.0%



1년 전과 비교하여 사육두수가 감소된 농가의 감소 이유는 소모성 질병 등 질병, 방역 문제와 계획에 의한 자발적 모돈 감축이 각각 20.6%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성 저하 16.5%, 인력부족 12.4%, 생산비 증가(사료비 인상)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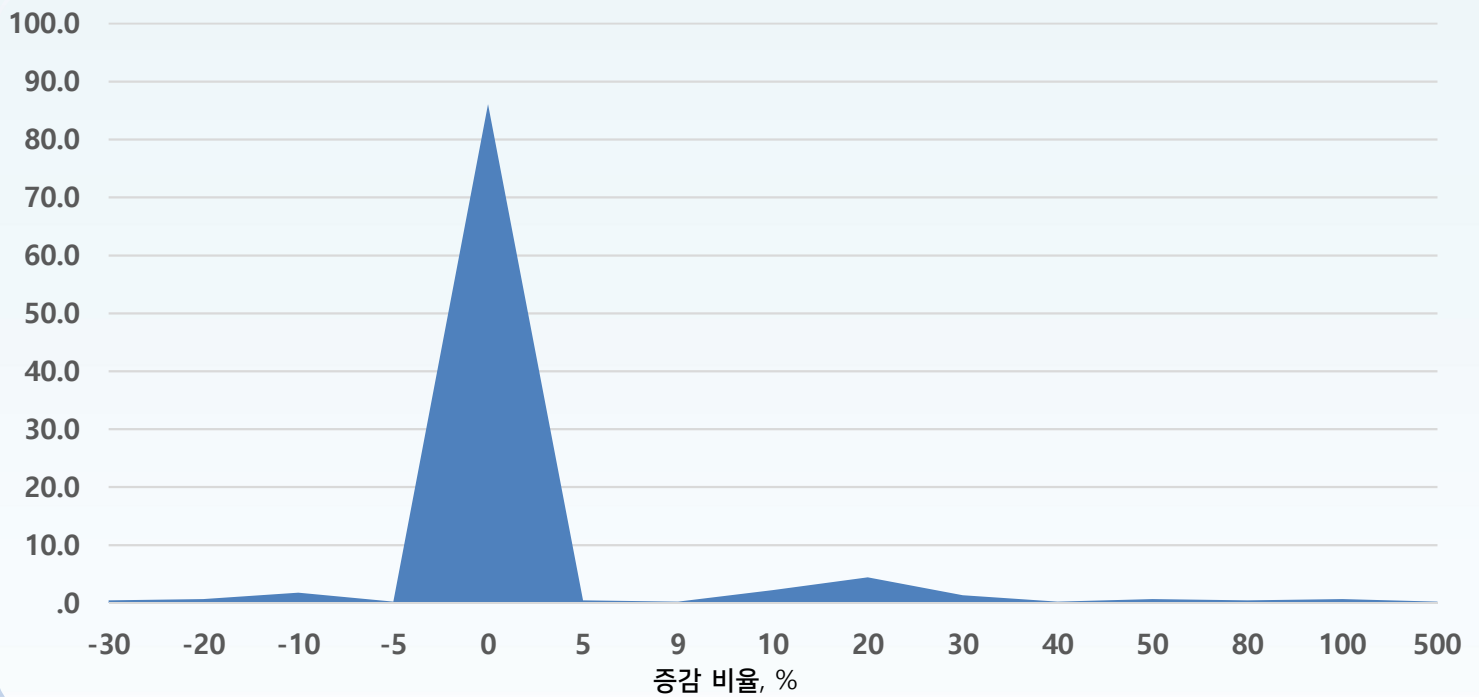




# 1년 후 사육두수 확대 및 감소 계획

## 기타의향 조사

증감	증감 비율	빈도	유효 퍼센트
감소 예정	-30	2	0.4
	-20	3	0.7
	-10	8	1.8
	-5	1	0.2
유지 예정	0	391	86.1
증가 예정	5	2	0.4
	9	1	0.2
	10	10	2.2
	20	20	4.4
	30	6	1.3
	40	1	0.2
	50	3	0.7
	80	2	0.4
	100	3	0.7
	500	1	0.2
	합계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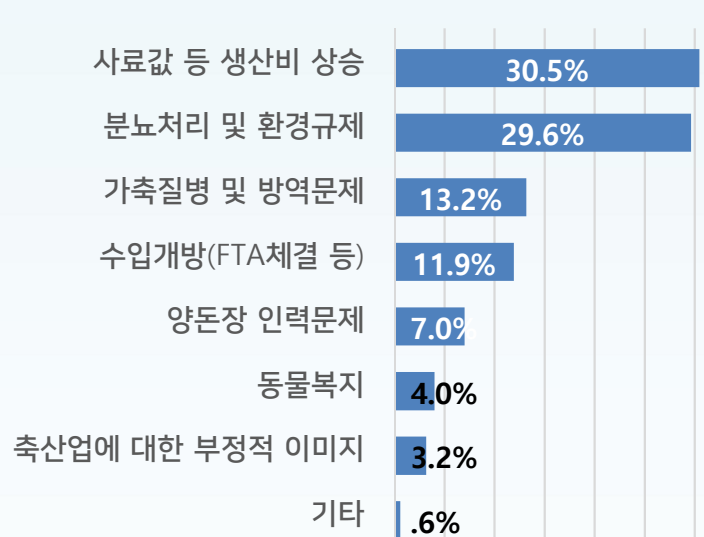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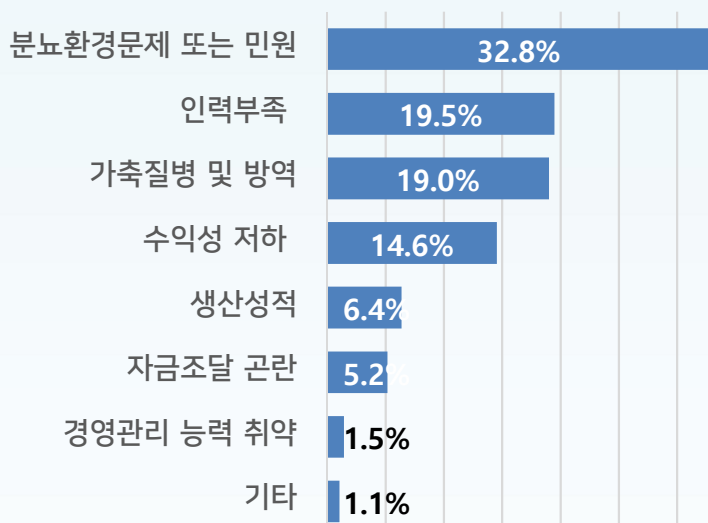
향후 1년 후 사육두수 변화에 대한 응답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86.1%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시킨다는 농가는 10.8%, 감소시킨다는 농가는 3.1%였음. 확대 및 감소 산출 결과, 약 3.6% 사육두수를 늘릴 것으로 조사되었음.



		응답 수	퍼센트(%)
양돈업하면서 어려운 점	분뇨, 환경문제 또는 민원	406	32.8%
	인력부족	241	19.5%
	가축질병 및 방역	235	19.0%
	수익성 저하	180	14.6%
	생산성적	79	6.4%
	자금조달 곤란	64	5.2%
	경영관리 능력 취약	18	1.5%
	기타	13	1.1%
	합계	1236	100.0%
향후 한돈사업을 어렵게 할 요인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365	30.5%
	분뇨처리 및 환경규제	355	29.6%
	가축질병 및 방역문제	158	13.2%
	수입개방(FTA체결 등)	143	11.9%
	양돈장 인력문제	84	7.0%
	동물복지	48	4.0%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38	3.2%
	기타	7	0.6%
	합계	1198	100.0%

<양돈업의 어려운점>

<향후 한돈사업 어렵게 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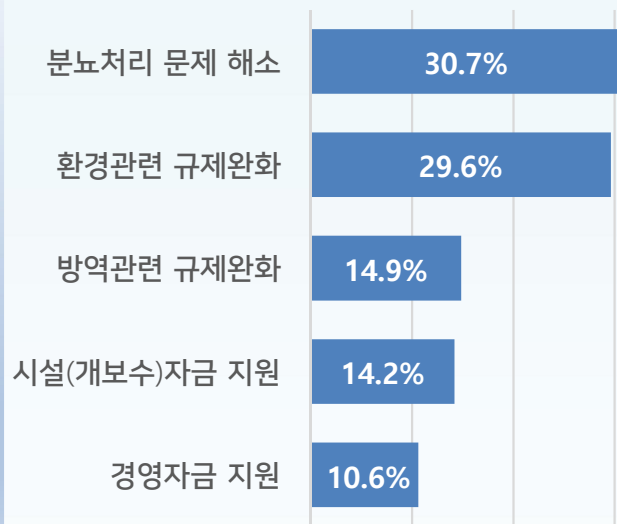
(다중응답) 양돈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분뇨·환경문제 또는 민원'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부족' 19.5%, '가축질병 및 방역' 19.0%, '수익성 저하' 14.6%, '생산성적' 6.4%, '자금조달 곤란' 5.2% 순으로 나타남.

향후 한돈사업을 어렵게 할 요인은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과 '분뇨처리 및 환경규제'가 각각 30.5%, 29.6%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축질병 및 방역문제' 13.2%, '수입개방(FTA체결 등)' 11.9%, '양돈장 인력문제' 7.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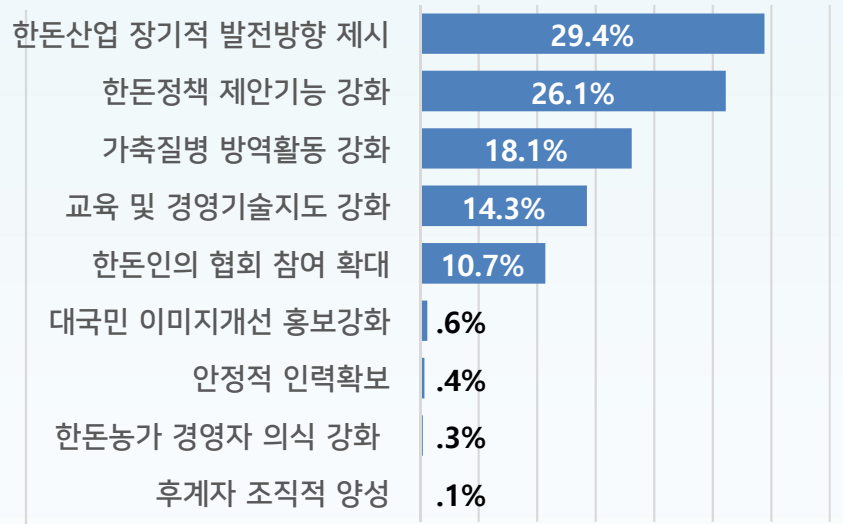


		응답 수	퍼센트(%)
양돈업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	분뇨처리 문제 해소	384	30.7%
	환경관련 규제완화	371	29.6%
	방역관련 규제완화	186	14.9%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178	14.2%
	경영자금 지원	133	10.6%
	합계	1252	100.0%
대한한돈협회에 바라는 점	한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231	29.4%
	한돈정책 제안기능 강화	205	26.1%
	가축질병 방역활동 강화	142	18.1%
	교육 및 경영기술지도 강화	112	14.3%
	한돈인의 협회 참여 확대	84	10.7%
	대국민 이미지개선 홍보강화	5	0.6%
	안정적 인력확보	3	0.4%
	한돈농가 경영자 의식 강화	2	0.3%
	후계자 조직적 양성	1	0.1%
	합계	785	100.0%

<양돈업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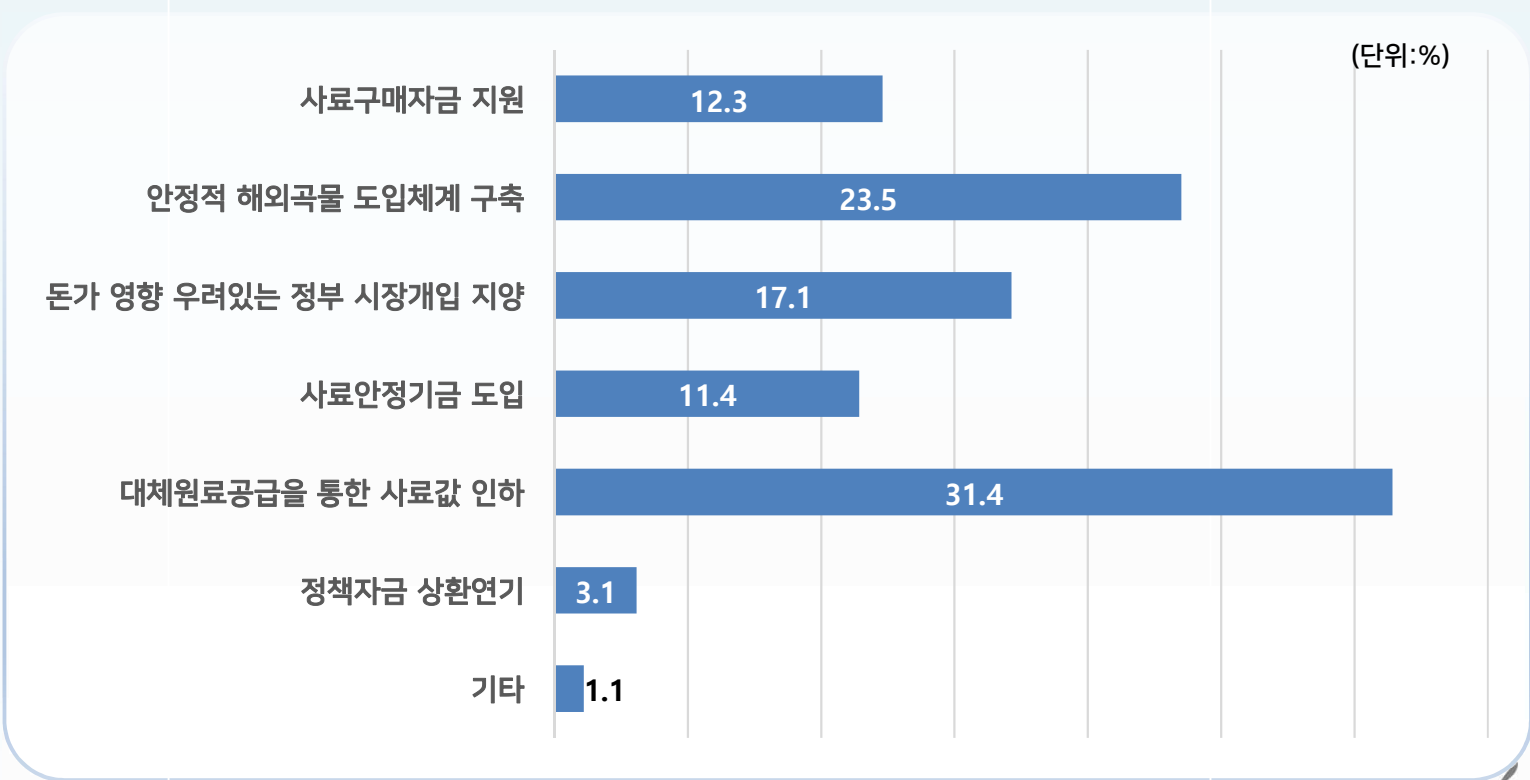
<대한한돈협회에 바라는 점>



(다중응답) 양돈업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은 '분뇨처리 문제 해소'와 '환경관련 규제 완화'가 각각 30.7%, 29.6%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역관련 규제완화' 14.9%, '시설(개보수) 자금 지원' 14.2%, '경영자금 지원' 10.6% 순으로 나타남. 양돈업의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에 바라는 점은 '한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돈정책 제안기능 강화' 26.1%, '가축질병 방역활동 강화' 18.1%, '교육·경영기술지도 강화' 14.3%순으로 나타남.



		농가 수	유효 퍼센트(%)
효과적인 사료가격 대책	사료구매자금 지원	56	12.3
	정책자금 상환연기	14	3.1
	대체원료공급을 통한 사료값 인하	143	31.4
	사료안정기금 도입	52	11.4
	돈가 영향 우려있는 정부 시장개입 지양	78	17.1
	안정적 해외곡물 도입체계 구축	107	23.5
	기타	5	1.1
	합계	4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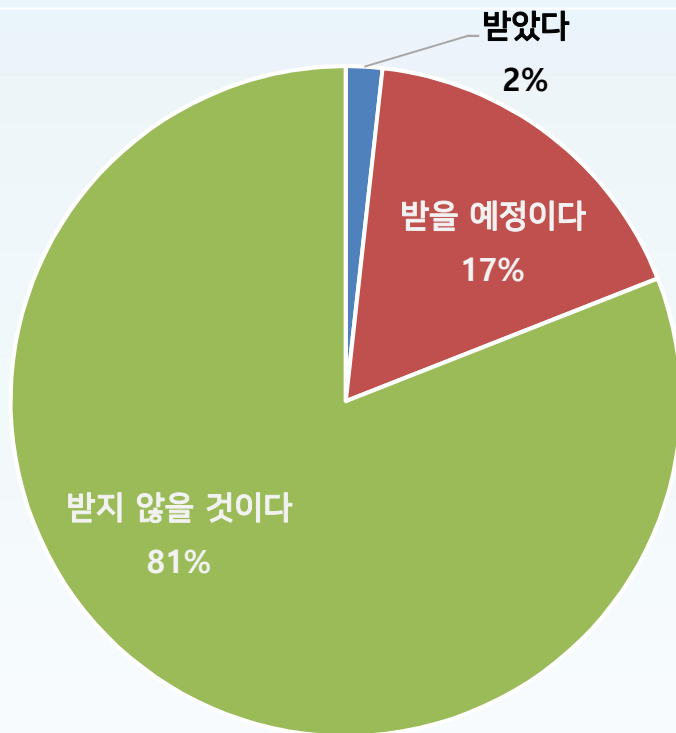
효과적인 사료가격 대책에 대한 응답은 대체원료공급을 통한 사료값 인하가 31.4%로 가장 많았으며, 안정적 해외곡물 도입체계 구축 23.5%, 돈가하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돼지고기 할당관세 확대, 도매시장 출하시 도축수수료 지원 등)지양 17.1%, 사료 구매자금 지원(농가 지원) 12.3%, 사료안정기금 도입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I. 개요
- II. 응답자 기본사항
- III. 생산성 조사
- IV. 수익성 조사
- V. 유통 및 계열화
- VI. 기타 의향조사
- VII. 동물복지 및 ICT



		농가 수	유효 퍼센트(%)
동물복지 인증	받았다	8	1.8
	받을 예정이다	79	17.3
	받지 않을 것이다	370	81.0
	합계	4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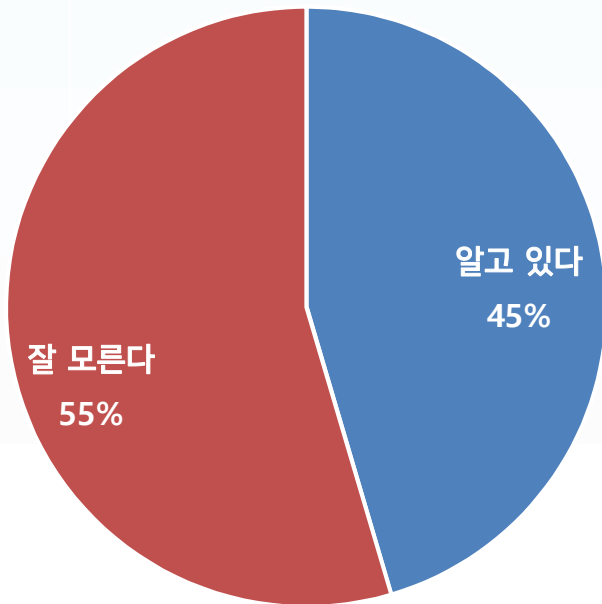


동물복지인증 여부에 대한 응답은 받지 않을 것이다 81.0%, 받을 예정이다 17.3%, 받았다 1.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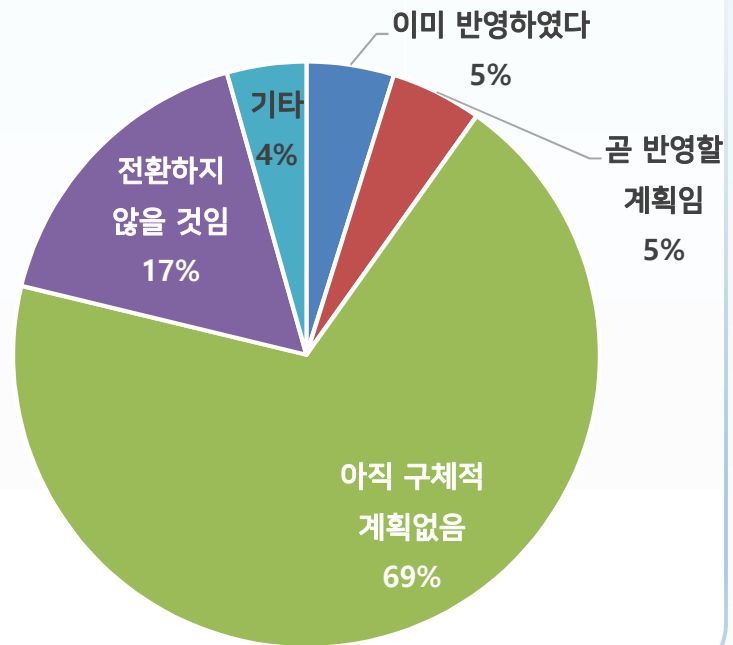


		농가 수	유효 퍼센트(%)
2030년 임신돈 군사사육 전환 인지여부	알고 있다	209	45.4
	잘 모른다	251	54.6
	합계	460	100.0
임신돈 군사사육 시설 전환 계획	이미 반영하였다	22	4.8
	곧 반영할 계획임	23	5.0
	아직 구체적 계획없음	315	68.9
	전환하지 않을 것임	77	16.8
	기타	20	4.4
	합계	457	100.0

<2030년 임신돈 군사사육 전환 인지여부>



<임신돈 군사사육시설 전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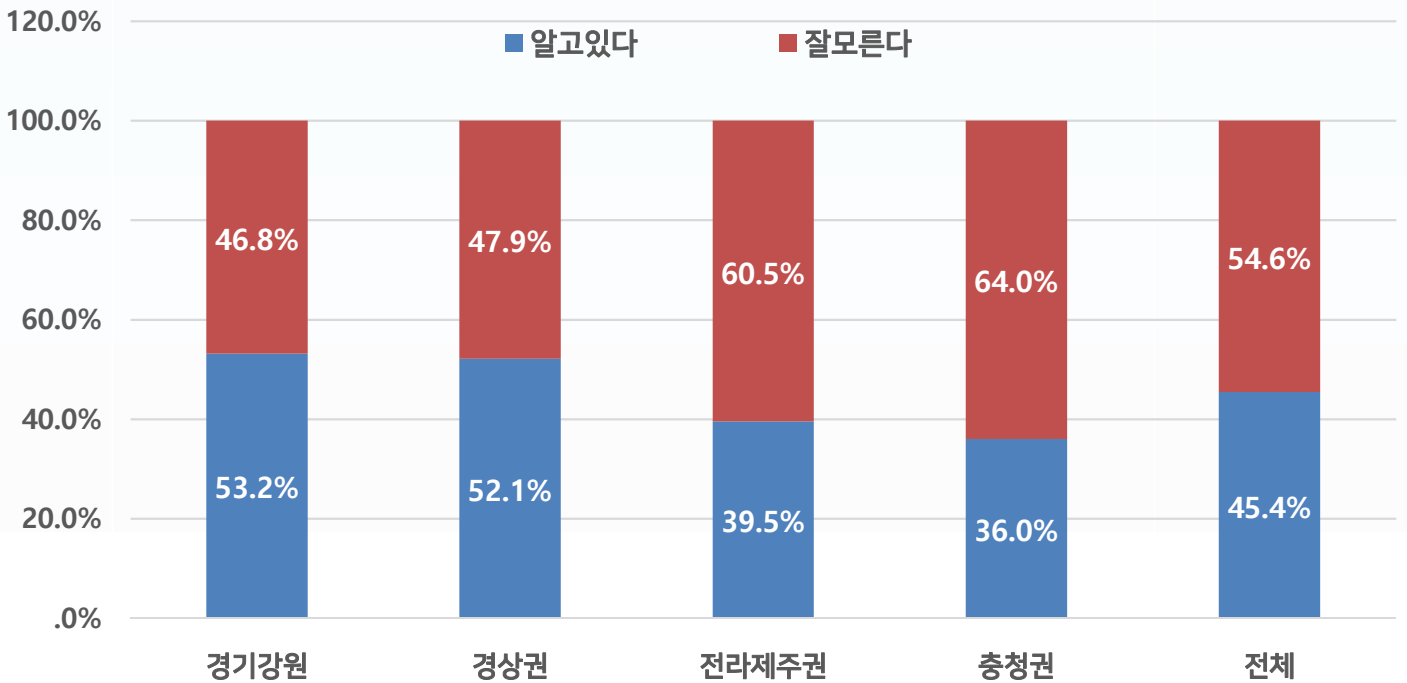


2030년 1월 1일부터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군사 공간 또는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스톨에서 사육하여야 함.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농가는 45%, 잘모르고 있는 농가는 55%로 나타남. 임신돈을 군사로 사육하는 시설로 전화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이 69%로 가장 많았고, 전환하지 않을 것임 16.8%, 곧 반영할 계획임 5.0%, 이미 반영함 4.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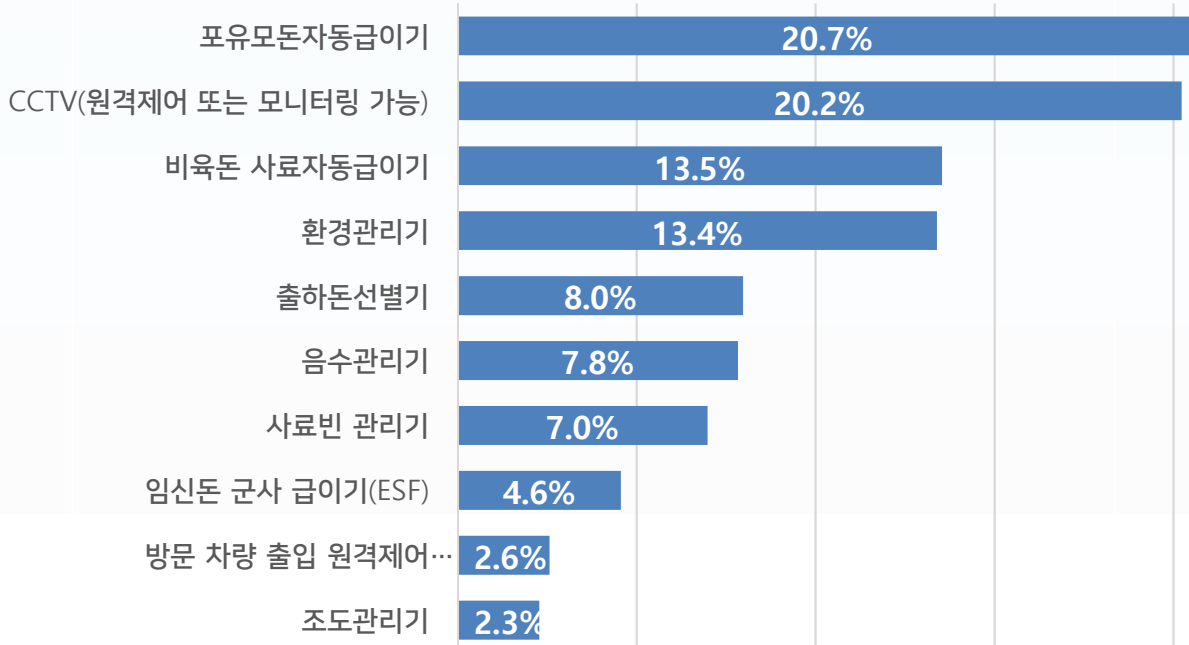
구분**							
			경기강원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전체
임신돈 군사사육 전환 인지 여부	알고있다	빈도	50	74	49	36	209
		인지%	23.9%	35.4%	23.4%	17.2%	100.0%
		농장소재지%	53.2%	52.1%	39.5%	36.0%	45.4%
	잘모른다	빈도	44	68	75	64	251
		인지%	17.5%	27.1%	29.9%	25.5%	100.0%
		농장소재지%	46.8%	47.9%	60.5%	64.0%	54.6%
	전체	빈도	94	142	124	100	460
		인지%	20.4%	30.9%	27.0%	21.7%	100.0%
		농장소재지%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신돈 군사사육 전환에 대한 내용의 인지 여부는 농장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5%)가 있음. 경기강원, 경상권은 인지하고 있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고, 전라제주권, 충청권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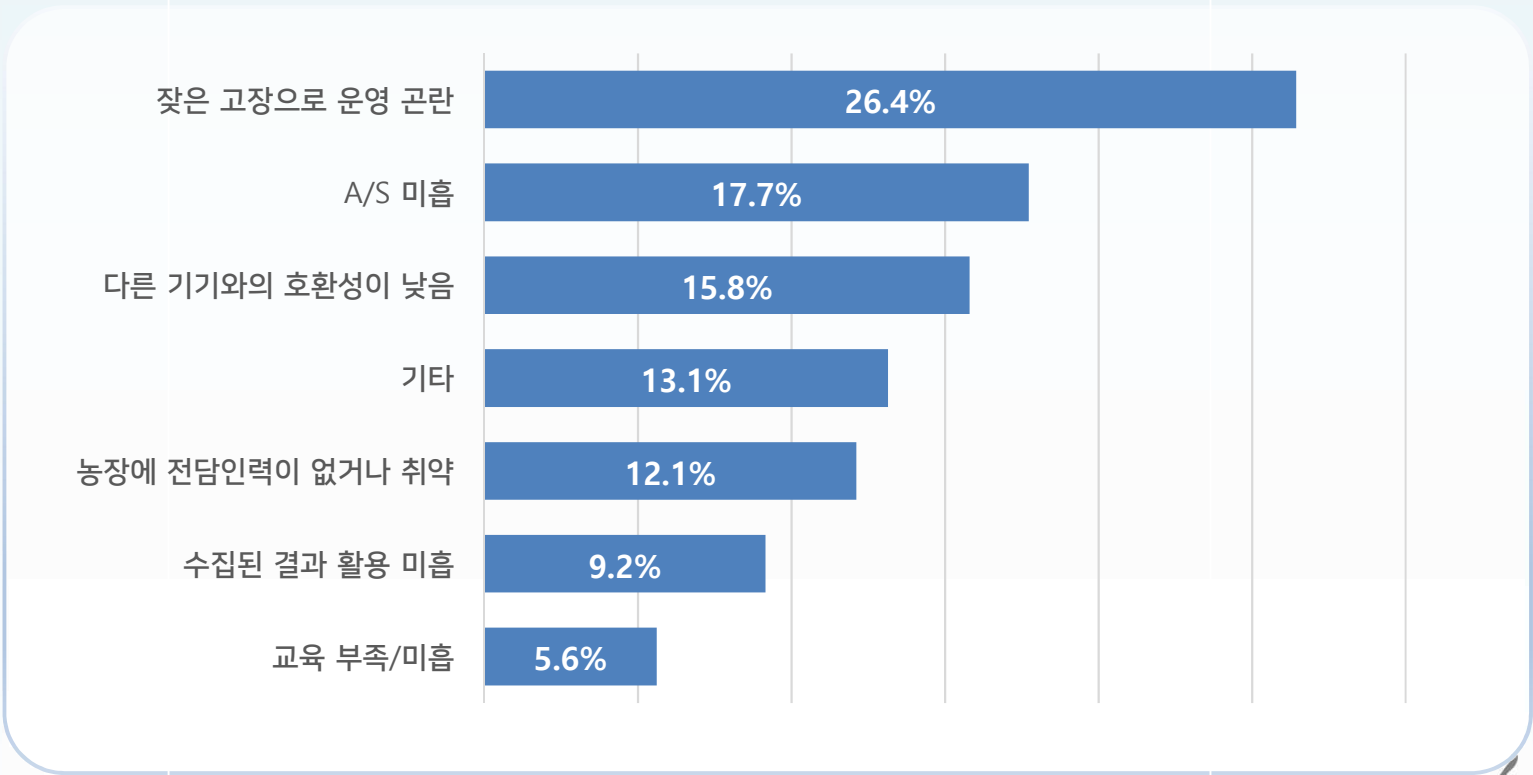
		농가 수	유효 퍼센트(%)
보유 중인 ICT 기계 및 장비	포유모돈자동급이기	145	20.7%
	임신돈 군사 급이기(ESF)	32	4.6%
	환경관리기	94	13.4%
	사료빈 관리기	49	7.0%
	음수관리기	55	7.8%
	비육돈 사료자동급이기	95	13.5%
	조도관리기	16	2.3%
	CCTV(원격제어 또는 모니터링 가능)	142	20.2%
	출하돈선별기	56	8.0%
	방문 차량 출입 원격제어 및 자동기록 장비	18	2.6%
합계		702	100.0%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ICT 관련 설치 기계와 장비에 대한 조사결과, 포유모돈자동급이기가 20.7%로 가장 많았으며, CCTV 20.2%, 비육돈 사료자동급이기 13.5%, 환경관리기 13.4%, 출하돈선별기 8.0%, 음수관리기 7.8%, 사료빈관리기 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농가 수	유효 퍼센트(%)
ICT 장비 운영 시 애로사항	A/S 미흡	120	17.7%
	잡은 고장으로 운영 곤란	179	26.4%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 낮음	107	15.8%
	교육 부족/미흡	38	5.6%
	농장에 전담인력이 없거나 취약	82	12.1%
	수집된 결과 활용 미흡	62	9.2%
	기타	89	13.1%
	합계	677	100.0%



ICT 장비의 운영상 애로사항은 잡은 고장으로 인한 운영 곤란이 2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A/S미흡 17.7%, 다른 기기와 호환성이 낮음 15.8%, 기타 13.1%, 농장에 전담인력이 없거나 취약 12.1%, 수집된 결과 활용 미흡 9.2%, 교육 부족/미흡 5.6% 순으로 나타남.



- 한돈산업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물론, 한돈농가를 위한 각종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정부와 업계에 건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한돈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00두 이상 규모 한돈농장 4,358호 중 462호(10.6%) 조사하였었음.
- 응답자의 농장 소재지는 경기·인천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부산·울산, 경북·대구, 전북, 충남·세종·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농가의 사육 형태는 81.2%가 일관경영으로 나타났음.
- MSY는 평균 18.4두였으며, 사육규모별 MSY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신뢰수준 99%)가 있음.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MSY는 증가함. 특히 2000천 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폭이 확대됨.
- 지난 2년간(2021~2022년) 농장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질병은 기타 호흡기계 질병. PRRS, PED 순으로 나타남.
- 방역 및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응답은 '농장주의 방역의식 강화', '가축방역제도 및 규제개선', '가축질병 신고체계 구축(신고 및 발생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청정한 종돈공급' 순으로 나타남.
- 비육돈 1마리 출하하기 위해 소요되는 생산비용(자가인건비, 영업외 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은 약 38만 2천원임. 사육규모별로는 1,000~2,999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999두 미만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최근 1년간 사육두수 변화에 대한 응답은 동일하게 유지한 농가가 76.4%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시킨다는 농가는 10.2%, 감소시킨다는 농가는 13.4%였음
- 양돈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분뇨·환경문제 또는 민원', '인력부족', '가축질병 및 방역', '수익성 저하', '생산성적', '자금조달 곤란'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한돈사업을 어렵게 할 요인은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분뇨처리 및 환경규제', '가축질병 및 방역문제', '수입개방(FTA체결 등)', '양돈장 인력문제' 순으로 나타남.
- 양돈업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은 '분뇨처리 문제 해소', '환경관련 규제 완화', '방역관련 규제완화', '시설(개보수) 자금 지원', '경영자금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양돈업의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에 바라는 점은 '한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한돈정책 제안기능 강화', '가축질병 방역활동 강화', '교육·경영기술지도 강화' 순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올해 한돈농가경영실태 분석결과 한돈농가는 인건비상승, 사료비 상승과 환경규제, 방역규제, 인력문제 등의 문제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 역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돈농가들이 한돈협회의 바라는 내용을 보면 점은 '한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한돈정책 제안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한돈협회에서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한돈농가의 경영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여 농가들에게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